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주 영 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개발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최 성 희

#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개발 연구

주 영 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전통문화콘텐츠전공


최 성 희

# 인준서

최성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안승욱 

심사위원 최배영 

심사위원 주영배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성년례의 실행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관·계례의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와 현대의 성년례 실태를 반영하여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집체성년례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성인의 기본자세를 갖추어 사회로 출발하게 하고 품격 높은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대성년례가 정착되어 가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년례에 대한 인식조사와 집체성년례 모형을 구성하여 시행한 후 참여만족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실태와 고등학교 성년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대상 성년례 실태와 인식조사는 J시 지역의 28개 고등학교 교사와 전국에서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학교 10개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학생대상 조사는 J시 지역의 D고등학교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차 조사로는 2011년 5월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성년례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고, 2차 조사는 3학년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4일에서 18일까지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후 행사의 참여만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학생대상 조사 결과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년례 교육 후, 성년례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총5점 만점에 평균 3.66이었다. 3학년의 성년례 행사 후, 집체성년례 참여 만족에 대한 결과로는 식후 행사인 '영상 메시지(3.65)'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큰절하기(3.62)', '술의 의식(3.62)'이 각 2, 3위를 나타냈다. 성년례를 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로는 '고등학교 수능 시험 후'가 47.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 순으로 '만19세 성년의 날에'가 17.1%, '고등학교 졸업식 때'가 12.4%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고등학교 교사의 전화면접 결과 J시 지역의 경우 28개 학교 중 고등학교 집체성년례가 시행된 학교는 1개교(3.6%)였으며, 6명(21.4%)의 대상자가 성년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집체성년례 행사를 할 계획이나 의향은 3명(10.7%)으로 전반적으로 관심 및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실제 고등학교 집체성년례를 시행 한 학교의 경우 대체적으로 3학년 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우리 전통 禮儀式인 성년례가 교육적 효과로 매우 좋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실행을 위해 구성한 집체성년례 모형은 1부 국민의례- 내빈소개- 국선도 시연, 2부 거례선언- 큰손님모시기- 성년자 다짐- 告由禮- 성년선언- 성년례 필증 수여- 醮禮 [술의 의식] - 讀約禮- 큰손님 수훈- 주인 인사(학교장)- 내빈 축사- 가족대표 인사- 성년자 배례- 예필선언, 3부 영상메시지- 큰손님과 주인 퇴장- 성년자 가족과의 만남- 기념사진 촬영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50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집체성년례 행사 후 그 평가를 토대로 향후 집체성년례가 지향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이 경건하고 신성하게 성년례의식에 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행하고 의식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성년선언에 대한 '성년례 필증'을 격식 있게 갖추어 성년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이는 성년례 의미를 새기게 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셋째, 부모가 성

년자들에게 호를 작명하여 줌으로써 성년례의미를 고취시켜야 한다. 넷째, 성년자들은 ‘부모님께 올리는 글’을 올림으로써 보은의 禮를 갖는다. 성년자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글인 ‘부모님께 올리는 글’을 작성하여 성인이 되는 첫 발걸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새겨봄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보게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년자는 한복을 입고 성년례를 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집체성년례 의미를 살리기 위해 중요한 점은 부모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을 시행한 후 보완·개선하여 그 절차에 ‘호 부여하기’와 ‘부모님께 올리는 글’의 절차를 추가하였다. 이에 새로이 제안하는 집체성년례의 모형의 시행을 통해 고등학교 집체성년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사회로 나아가는 고등학생들은 성년례를 통하여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년 됨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관심과 격려는 사회로 나아가는 성년자에게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체성년례의 모형 개발과 시행 후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성년례가 우리의 아름다운 禮文化로 전승되어지고 성년례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다양한 모형개발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연구방법 .....	4
1. 조사 연구 .....	4
2. 모형 개발 .....	8
III. 성년례의 이론적 고찰 .....	10
1. 성년례의 역사적 고찰 .....	10
2. 현대 성년례의 변천과정 .....	22
3. 현대 집체성년례의 유형 .....	25
4. 선행연구 .....	32
IV.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개발 .....	39
1. 모형 구성 .....	39
1) 모형 구성의 배경 .....	39
2) 모형 구성의 필요성 .....	41

3) 집체성년례 모형 구성 .....	43
2. 모형적용 .....	56
1) 모형 적용 진행절차 .....	57
2) 고유례의 이해 .....	60
3) 독약례의 이해 .....	62
<b>V.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의 실태 및 인식조사 .....</b>	<b>63</b>
1. 집체성년례의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 .....	63
1) 집체성년례에 대한 인식 .....	63
2) 집체성년례의 시행 실태 .....	69
2. 집체성년례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	76
1) 성년례에 대한 인식 .....	76
2) 집체성년례 시행 후 참여만족 및 요구 .....	80
<b>VI. 결론 및 제언 .....</b>	<b>96</b>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II-1> 조사방법 및 대상 .....	5
<표 III-1> 표준성년례 측사 .....	27
<표 III-2> 건전가정의례준칙 시행령 내용 .....	29
<표 III-3> 집체성년례 절차 .....	31
<표 III-4> 성년례에 대한 선행연구 .....	34
<표 III-5> 새로운 성년례의 모형개발의 절차 .....	38
<표 IV-1> 집체성년례 진행 절차 .....	45
<표 IV-2> 집체성년례 인원구성 현황 .....	46
<표 IV-3> 성년례 행사 준비물 .....	47
<표 IV-4> 성년의 다짐 서식 .....	48
<표 IV-5> 고유례 서식 .....	48
<표 IV-6> 성년 선언 서식 .....	49
<표 IV-7> 성년례 필증 서식 .....	49
<표 IV-8> 독약례 서식 .....	50
<표 IV-9> 전통배례와 현대경례 .....	55
<표 IV-10> 모형적용 집체성년례 진행 절차 .....	58
<표 V-1> J시 소재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실태 .....	64
<표 V-2>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시행 실태 .....	71
<표 V-3> 집체성년례 시행 실태 .....	72
<표 V-4> 집체성년례를 시행 한 고등학교 교사 면접 결과 .....	73

<표 V-5> 성년례 인식 및 필요성 문항 구성 .....	77
<표 V-6> 성년례 교육 전 성년례에 대한 인지 .....	78
<표 V-7> 교육 전·후에 따른 성년례의 정의에 대한 인지 .....	78
<표 V-8> 교육 후 성년례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의사 .....	79
<표 V-9> 성년례 교육 후 성년례 행사의 요구 .....	80
<표 V-10> 성년례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82
<표 V-11> 집체 성년례의 참여 만족 .....	85
<표 V-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체성년례 참여 만족 차이 분석 .....	84
<표 V-13> 집체 성년례 절차 항목 간 만족의 상관관계 .....	90
<표 V-14> 성년례 후 삶에 대한 도움 .....	92
<표 V-15> 성년례 행사 만족이 삶의 도움정도에 미치는 영향 .....	93
<표 V-16> 전통 관례 중 체험 희망 행사 .....	93
<표 V-17> 성년례 시기 및 행사 소요시간 .....	95

## 그 립 목 차

<그림II-1> 모형 개발 절차 .....	8
<그림IV-1> 집체성년례 모형 전체 진행도 .....	44
<그림IV-2> 성신여자대학교 박광훈 복식 박물관 사진자료 .....	52
<그림IV-3> 집체성년례 사전 교육 .....	57
<그림IV-4> 집체성년례 행사 사진 .....	59

## I. 서 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정의례는 冠婚喪祭의 四禮가 행해져 왔다. 冠婚喪祭는 冠禮·婚禮·喪禮·祭禮를 일컫는다. 그 중 冠禮는 사람의 일생 중에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의례였다. 관례는 성년이 되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어른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데 그 뜻이 있다.

古禮로 冠을 禮의 출발이라고 했다. 『禮記』의 「冠義」편에 “관례를 치른 후에야 복장이 갖추어 지고 복장을 갖춘 뒤에 용체가 바르게 되며, 안색이 가지런해지고 말이 순해지므로 관례는 禮의 시작이다. 故로 孝悌忠順의 행실이 성립된 후에 사람다울 수 있고, 사람다운 이후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sup>1)</sup>고 하였다. 이로 보면 관례를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된다.”<sup>2)</sup>는 뜻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우리 傳統文化의 冠禮는 1895년 시행된 斷髮令으로 상투와 冠으로 상징되던 冠禮의 외형적 형태가 그 의의를 잃게 되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개화기 외래문화 유입으로 유교사상의 쇠퇴와 양반계급이 해체되는 등 여러 원인으로 약 1940년대까지 양반가에서 행해지다가 점차 그 의미와 절차가 소멸되었다(이정우·김연화·김경아, 2000). 그러나 역사가 아무리 변천한다고

---

1) 『禮記』, 「冠義」, 冠而后服備, 服備而后容體正, 顏色齊, 辭令順. 故曰冠者, 禮之時也. …故孝悌忠順之行立, 而后可以爲印, 可以爲人, 而后可以治人也. 冠而后服備, 服備而后容體正, 顏色齊, 辭令順. 故曰冠者, 禮之時也. …故孝悌忠順之行立, 而后可以爲印, 可以爲人, 而后可以治人也.

2) 『禮記』, 「冠義」, 成人而與爲禮也

해도 禮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외형적, 표면적인 제도나 형식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달라질지라도 그 제도를 밑받침하는 내면적, 본질적 요소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느 시대에서나 동일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의 박차를 가했던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생활방식에 따라 196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정의례준칙이 반포되었다. 가정의례준칙은 1934년에 관례가 제외된 의례준칙 이후 婚禮·喪禮·祭禮·回甲宴 등의 가정의례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동안 가정의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례는 1961년 유교 측 인사로부터 관례의 필요성과 ‘성년례’라는 용어로 언급되기 시작했다(김정화, 2010). 그러던 중 국가 차원에서 1973년 4월 20일에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어 ‘제1회 성년의 날’의 행사를 거행하고 올해로 40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년례는 1997년 문화체육부에서 ‘표준성년례’모형이 발표되고 1999년 8월 31일에 ‘건전가정의례준칙’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가정의례로 포함되었다. 전통사회에서의 관례가 사라진 이후 현대의 성년례로 거듭나게 된 것은 근래에 들어 청소년들의 탈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관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여 관례의 외형적 형식의 많은 변형과 함께 현대의 성년례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성년례는 각 가정의 부모가 주관하였던 관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회사 등 여러 단체에서 집체성년례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통적인 관례 의미를 이해하기란 어려운 현실이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각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년례의 본질적 의미와는 다른 또래문화의 변질된 성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현 사회와 부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로의 진출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정신적 혼란을 경험하며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조희선·이혜자·이윤정, 2002). 아울러 수능시험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갖는 일부 고등학생들의 책임의식 없는 일탈 행동도 문제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치열한 대학입시준비와 대학입학전의 공백 기간에 일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성년례 대상의 연령이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거하여 만 19세로 정해져 시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년례가 시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성년례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집체성년례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성인의 기본자세를 갖추어 사회로 출발하게 하고 품격 높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대 성년례가 정착되어 가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조사 연구

본 연구는 현대 성년례가 각 단체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집체성년례의 모형 개발에 목적을 두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년례에 대한 인식조사와 집체성년례 모형을 구성하여 시행을 한 후 참여만족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집체성년례를 시행 한 실태와 고등학교 성년례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대상 조사는 성년례의식의 대상이 고등학생이므로 경건하고 신성한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사와 고등학생의 조사는 집체성년례 모형 개발의 보완과 개선점을 탐색해 보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조사 자료의 분석에서 교사대상의 조사는 빈도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등학생 대상 조사에서 성년례에 대한 인식조사는 빈도분석과 카이검증을 실시하였고 행사의 참여만족 및 요구조사는 빈도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t검증, 분산분석, 회귀분석의 통계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설문구성의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고 분석한 통계처리는 SPSS 17.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조사한 방법과 내용은 다음<표 II-1>와 같다.

<표 II-1> 조사방법 및 대상

구분		조사 방법	대상	조사 기간	조사내용
교사	성년례에 대한 인식	전화면접	J시 소재 고교 교사 28명	2012년 4/9일 ~11일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시행경험,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시행에 대한 인식, 행사 의사
	집체성년례 시행 실태		시행 한 고교 교사 10명	2012년 6/18일 ~19일	집체성년례 시행시기, 대상, 참석인원, 행사횟수, 향 후 시행계획
고등학생	성년례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J시 소재 1학년 380명	2011년 5/4일 ~13일	성년례 인지, 성년례 교육과 성년례의 필요성, 참여 의사, 행사에 대한 요구사항
	집체성년례 시행 후 참여 만족 및 요구		J시 소재 3학년 200명	2011년 11/14일 ~18일	집체성년례 시행 후 참여 만족, 삶에 도움 정도, 전통관례 체험, 행사에 대한 요구사항

## 1) 교사 대상 전화면접

### (1) 집체성년례에 대한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

고등학교의 집체 성년례를 행사한 실태와 교사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J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교사 28명에게 2012년 4월 9일~11일에 전화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에 의해 현 고등학교에서 집

체성년례를 시행한 경험, 수능시험 후의 3학년 고등학생에게 집체성년례 의식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교에서 집체성년례를 행사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면담 자는 주로 학교경영과 학교 내 학생교육활동의 보좌 및 지원활동의 직무를 맡고 있는 교감과 전화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부재 시 교무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2)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고등학교의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체성년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http://www.naver.com/> 과 <http://www.daum.net/>에서 '고등학교 성년례', '성년례', '집체성년례' 라는 키워드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10곳의 고등학교에 2012년 6월 18일~19일에 걸쳐 전화통화를 실시하여 주로 성년례를 담당하고 있는 10명의 교사와 전화면접을 하였다. 연구목적에 의해 고등학교에서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시기와 대상, 참석인원, 행사횟수와 향 후 행사의 계획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2) 고등학생 대상 설문 조사**

### **(1) 성년례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에게 성년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J시 지역의 D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2011년 5월 4일~13일에 성년례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한 후 3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내용과 목적 및 작성요령을 본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며 이해가 가지 않는 문항의 항목은 응답자에게 질문하도록 요구하였다. 자기기입식으로 기입하고 즉시 회수하는 형식으로 370부를 수거하였다. 연구목적에 대해 성년례를 알고 있는지와 성년례교육과 필요성, 참여 의사, 행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 (2) 집체성년례 시행 후 참여 만족 및 요구

모형 적용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J시에 소재한 D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4일~17일 까지 성년례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4일간의 교육 후 11월 18일에 250명을 대상으로 집체성년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수능시험 후 입시준비의 영향으로 당일에 배포를 하지 못하고 11월 21일에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조사자로부터 설문 목적 및 작성요령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기입하고 즉시 회수하는 형식으로 조사하여 187부를 수거하였다. 연구목적에 대해 설정한 조사내용은 집체성년례 의식의 참여 만족과 행사 후 삶에 대한 도움 정도, 전통 관례의 체험과 현대 성년례 행사에 요구는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 2. 모형 개발

본 연구의 목적인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구성하고 개선점을 탐색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 방법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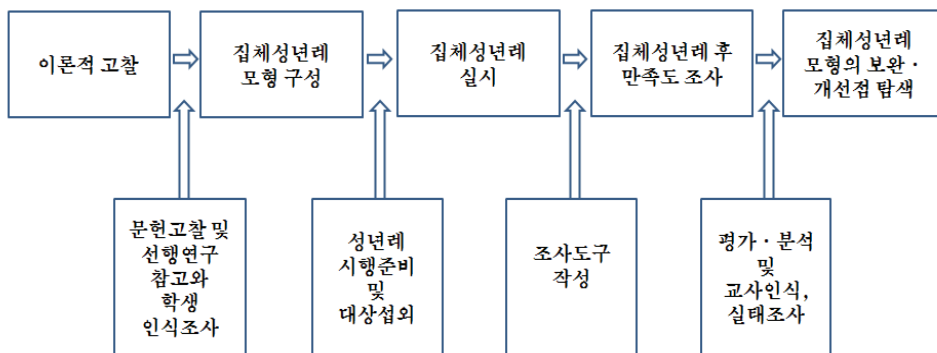
첫째, 성년례의 원형인 관례·계례에 대한 문헌 고찰 및 성년례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이론적 토대와 고등학생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을 참고하여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집체성년례를 실시하였다.

넷째,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후 행사의 참여 만족과 요구에 대한 조사,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위의 모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의 보완점과 개선점을 탐색하여 보았다.



<그림 II-1> 모형 개발 절차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을 중심으로 현대 성년례의 원형인 관·계례에 대한 문헌고찰과 현대 성년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조희진·김정신(1998), 이정우·김연화·김경아(2000), 조희선·이혜자·이윤경(2002),과 김순진(2003)의 현대 성년례 모형 개발의 탐색적 연구와 김은희(2009)와 신상구(2010)의 성년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 주영애(2010)의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성년례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교사는 J시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28명과 전국에서 고등학교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고등학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전화면접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고등학교 성년례 교육과 집체성년례 시행의 대상은 J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남학생 1학년 380명, 3학년 360명을 제외하여 실시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상의 이론적 토대와 조사대상자의 분석결과, 특히 1997년 문화체육부에서 발표한 '표준성년례'와 1999년 법률로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명시된 성년례의 식순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의 모형 구성과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을 탐색해보았다.

### Ⅲ. 성년례의 이론적 고찰

#### 1. 성년례의 역사적 고찰

##### 1) 성년례의 원형인 관·계례의 역사와 의미

우리나라 성년례의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남선(1948)은 성년으로서의 계율을 가르치고 명산대처를 순회하며 연마시켰던 源花制나 花郎制度를 일종의 진보된 성년례의 한 형태로 보아 우리나라 고유의 성년례가 뿌리 깊음을 주장하였다(이정우·김연화·김경아, 2000). 우리나라 관례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冠禮에 대한 「冠義」편이 들어 있는 『禮記』가 도입된 시기로 미루어 볼 수 있다. 『禮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八, 神文王條<sup>3)</sup>에 보아 신라 신문왕 6년(686년) 때이다(신상구, 2010).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정명이며, 문무대왕의 말아들이다...  
신문왕 6년 2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禮記>와 여러 문장을 요청하니,  
측천무후가 해당 관청에 명령하여 <吉凶要禮>을 베껴주고...

『禮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이 시기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禮의

3)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八, 神文王條, 神文王立 諱政明 文武大王長子也... 六年二月... 遣使入唐 奏請禮記并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정립은 고유의 문화와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後漢書』 「東夷列傳」(국사편찬위원회, 1989)의 기록을 보면 ‘「王制」<sup>4)</sup>에 이르기를 東方을 夷고 하였다. 夷란 根本이다. 夷는 天性이 유순하여 道理로서 다스리기 쉽기 때문에 君子國과 不死國이 있기까지 하다.<sup>5)</sup> 그러므로 ‘孔子도 東夷에 살고 싶어 하였다.’<sup>6)</sup>는 기록을 보면 공자 생존 시에 이미 우리나라는 도덕과 윤리, 예절이 정립된 禮儀之君子國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른바 중국이 禮를 잃으면 四夷<sup>7)</sup>에게서 구했던 것이다.’<sup>8)</sup> 고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중국의 禮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禮文化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고구려 멸망 시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전해져 우리나라 禮의 정립은 확실히 언제부터인지 규정하기는 어려워 중국의 기록에 의해 우리의 문화를 짐작할 따름이다.

관례를 행한 기록으로는 문헌상 『高麗史』 世家 2권의 “광종 16년 봄 2월에 왕자 卬에게 원복을 입혀 태자로 삼았다”<sup>9)</sup>는 기록이 있다. 광종 16년(965)에 왕자에게 元服禮의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이며 예종, 의종 때 왕세자도 관례를 행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에 왕실에서 거행된 기록 외에도 『家禮輯覽』, 『四禮便覽』 등의 관례의 절차가 명시된 점으로 보아 사대부에서 관례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中宗實錄』의 자료에는 “관례는 성인이 되는 禮이므로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중히 여겼는데 後에 폐

4) 『禮記』의 篇名

5) 『後漢書』 「東夷列傳」, 王制云: 東方曰夷 夷者 柢也. 天性柔順, 易以道御, 至有君子·不死之國焉.

6) 『後漢書』 「東夷列傳」, 孔子欲居九夷也. 『論語』 「子罕」에 나오는 글이다.

7) 蠻·夷·戎·狄을 통틀어 四夷라고 부르는 것은 公·侯·伯·子·南을 모두 諸侯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8) 『後漢書』 「東夷列傳」, 所謂中國失禮, 求之四夷者也.

9) 『高麗史』 2 光宗世家 十六年 春二月 加子卬元服立爲王太子

지되고 행해지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일은 상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sup>10)</sup>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冠禮를 중히 여기어 시행되었으나 행해지지 않으니 시행할 것을 논의한 자료로 미루어 보아 禮를 중시하는 집안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짐작한다. 관례는 사람의 행실을 갖추기 위함이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믿음직스럽고 순박한 마음가짐으로 즉 사람의 아들이며 형제이며 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젊은이의 도리를 갖추고 나서 어른이 되는 의미를 지닌 의식이었기 때문이다.

『小學』의 外篇 嘉言 廣明倫章에 司馬溫公이 말하기를 “관례라 하는 것은 사람을 이루는 道이니 사람을 이루는 것은 장차 사람의 자식이 되며, 아우가 되며, 신하가 되며, 어른에 대한 젊은이가 된 행동을 책임 지우는 것이니 장차 네 가지의 사람의 행동을 책임 지우는 것이니 그 禮를 가히 소중히 여기지 아니 할 까. 관례의 폐한지가 오래니 근세 이래로 인정이 더욱 가볍고 박하게 되어서 자식을 낳아서 오히려 젖을 먹음에 이미 巾과 帽를 더하고 벼슬이 있는 자는 혹 위해서 公服을 지어 입혀서 희롱하는 지라, 열 살이 지나도록 오히려 머리 땀은 자가 드무니 저것이 네 가지 행동으로써 꾸짖은들 어찌 능히 알리요. 이런고로 왕왕 어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 까지 어리석고 잘난 것이 하나 같으니, 성인의 도를 알지 못하는 연고이니라. 옛 예절에 비록 이십이 되어서 갓을 쓴다고 하나 세속의 폐단을 가히 창졸에 변하지 못할 것이니 만약 敦篤하고 厚하고 옛날을 좋아하는 君子가 그 아들이 나이 열다섯 살 이상을 기다려서 능히 『孝經』과 『論語』를 배워서 대강 禮와 義理의 방향을 안 연

10) 『中宗實錄』, 31卷 13年(1518) 戊寅, 1月 6日(丙午), 『冠禮』, 乃成人之大禮, 古人重之, 厥後廢而不行… 如此事, 當自上導之如何耳

후에 갓을 쓰면 이것이 그 아름다우니라. <sup>11)</sup> 하였다. 이는 남자 나이 스무 살 이면 관례를 행하여 어른 됨을 뜻하지만 어른으로서의 예와 의리를 안 연후에야 행동을 촉구한다는 의의를 말하고 있다. 『四禮便覽』<sup>12)</sup>에도 “남자의 나이 15세에서 20세까지 모두 관례를 할 수 있다.”<sup>13)</sup>하며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하였다.

관례는 오랜 역사를 통해 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가정의례의 대표적 중심이 되는 冠·婚·喪·祭 중 일생동안 첫 번째로 거치는 관문에 해당된다. 남자는 상투를 틀며 관을 씌워 관례라고 하고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다는 뜻으로 계례하고 하였다. 머리는 신체를 대표하는 동시에 정신이 담긴 곳으로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소통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관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머리에 어른의 관을 씌우므로 스스로를 적절히 다스리겠다는 절제와 의지를 세우고 자기 관리에 들어간다. 관례·계례의 참뜻은 禮의 출발점으로서 머리모양을 바꾸는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고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는 데에 뜻이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관·계례는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고 후손됨을 깨닫는 溫故而知新的의 우리나라의 순풍양속이었다. 또한 그 정신이 責成人之禮라고 해서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인식시키는 데에 참 목적이 있었다(김득중, 2007).

11) 『小學』, 外篇, 嘉言 廣明倫章, 司馬溫公曰 冠者成人之道也 成人者 將責爲人者 爲人弟 爲人臣 爲人少者之行也 將責四者之行於人 其禮 可不重與. 冠禮之廢久矣 近世以來 人情 尤爲輕薄 生子猶飲乳 己加巾帽 有官者 或爲之製公服而弄之. 過十歲猶總角者蓋鮮矣 彼責以四者之行 豈能知之 故 往往 自幼至長 愚如一 由不知成人之道故也 古禮雖稱二十而冠 然 世俗之弊 不可猝變 若敦好古之君子俟其子年十五以上 能通孝經論語 粗知禮義之方然後 冠之斯其美矣.

12) 『四禮便覽』, 저자는 李緯(1680~1746). 號는 陶庵·寒泉. 시호는 文正. 冠·婚·喪·祭에 대한 종합적인 참고서로 총 8권 4책으로 되어 있다.

13) 『四禮便覽』, 男子年十五至二十 皆可冠

冠禮의 중요한 의미는 어린이에서 어른의 세계로 분리된다는 것이다. 분리됨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에 冠을 씌운다. 冠의 기원을 살펴보면 『禮記』에 “관례가 시작된 것은 언제인지 책에 전해오는 正文 [올바른 글] 이 없다”<sup>14)</sup>고 되어 있어 冠禮의 起源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삼황 때에 모자로써 머리를 감싸고 네모난 옷깃으로 목을 둘러쌌다”<sup>15)</sup>는 기록이 있고, 「世本」에 “황제가 梅冕을 만들었으니, 이冕은 황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황제 이전에는 새의 깃털과 가죽으로 冠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布帛을 사용했다”<sup>16)</sup>는 기록이 전한다(이운정, 2002). 『漢字正解』에서 冠의 字를 풀어보면 ‘冫 + 元 + 寸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冫’은 ‘모자’를 나타낸다. ‘元’의 본래 뜻은 머리이다. 字形은 옆으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二와 儿을 합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二는 上의 古字이고, 儿은 人의 古字이다. 즉, ‘元’은 사람 [人]의 맨 위 [上]인 ‘머리’, ‘으뜸’, ‘근본’을 뜻한다. 寸은 又와 같고 손을 가리킨다. 옛날에는 貴賤에 따라 쓰는 冠이 달랐으므로 신분을 헤아려 쓰는 冠이라는 데서 ‘헤아리다’의 뜻을 나타내는 ‘寸’을 이에 덧붙였다고도 한다.<sup>17)</sup> 따라서 손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에 모자를 씌워 준다는 뜻을 나타낸다. 『說文解字注』에는, “冠은 머리카락을 묶고 나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綦이라 하고, 弁과冕 등의 총칭”<sup>18)</sup>이라고 했다. 玄의 字는 검다, 심원하다는 뜻으로 一과 ㄷ의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글자는 모두 “가린다”는 뜻을 나타낸다. 冠에

14) 『禮記』, 「冠義」疏 ‘冠禮起早晚書傳無正文’

15) 『儀禮』, 「土冠禮」鄭玄目錄 ‘孔穎達云 冠之所起 安略說云 古人冒而句領註云 謂三皇時 以冒覆頭句領 遠頭’

16) 『四禮纂說』, ‘世本云 黃帝造旃冕 是冕起於黃帝也 黃帝以前以羽皮爲冠 以後 乃用布帛’

17) 『百年玉篇』, 두산동아, 1997.

18) 『說文解字注』, ‘冠 綦也 所以綦髮弁冕之總名也’

가선을 두른 紕와 武의 諸畔을 黃帛이나 金으로 장식하였는데 이것은 중간 빛을 취하기 위한 것이며 玄冠의 화려함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흑색과 황색은 天과 地의 색이니 天地의 조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玄冠의 玄은 天의 의미로써 天은 위대한 창조력의 근원이 되며 거기에서 천지 만물이 생성하니 하늘의 도리를 알리는 것이다(이정옥, 1990). 『禮記集說』에 初加에 緇布冠을 쓰는 것은 근본을 잊지 않음<sup>19)</sup>이라고 하였는데 공자는 말하기를 “고례를 잊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 관례에 처음 치관과 복건을 씌우는 것도 역시 이런 의미이다.”<sup>20)</sup>라고 했다. 玄은 天의 색깔인데 하늘은 만물을 낳는 근본이므로 그 의미를 둔 것이다(조창규, 2007). 『家禮輯覽』에서도 처음에 쓰는 冠을 玄이나 緇로 하는 것은 反本과 復古에서 일어난 것이며 玄色은 하늘 빛을 따르고 緇色은 땅의 빛이다. 初加에 緇布冠을 쓰는 것은 옛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다(이정옥, 1990). 검은 玄의 시각적 색 보다는 하늘과 우주의 진리를 포함하는 깊은 뜻의 상징적 의미가 깊고 밝음이 있어 예복으로 한 듯하다.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우주의 자연 법칙을 따라 인간과 자연이 합일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철학적인 의미와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이정옥, 1990). 童子는 緇色을 쓰며 관례 후에 玄冠을 씌우는 것은 어른이 쓰는 冠이므로 이것을 씌으로써 君子의 도리를 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군자는 仁의 德을 체득하고 義를 조화시켜 사물의 바탕이 되는 중심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童子를 君子로 만들기 위해 天을 의미하는 玄冠을 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어른의 服을 입힘으로써 근본을 알게 하

19) 『禮記集說』 권974. ‘冠或以玄 或以緇者 反本復古也.’

20) “始冠必加緇布冠 孔子曰 示不忘古 今冠禮 始加以緇冠幅巾 亦此意也.”

고 君子の 도리에 따를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관례의 본질적인 사상의 가치를 정리하여 보면 근본과 진리에 관심을 갖고 이에 승一하겠다는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한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육체를 통제하려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인 영적인 삶에서 찾았다. 따라서 이 때 부터는 어렸을 때 의식하지 못했던 영적인 삶을 지향하여 인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즉,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의미에서 육체에 굴레를 메는 것이었다. 이는 곧 품위 있고 존엄적인 인간의 삶을 지향하는 출발점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冠의 색이 검은 색이었던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높은 하늘을 뜻하고, 그 뜻을 밝고 빛나게 하기 위해 금이나 황백으로 장식하였다.

## 2) 관 · 계례의 절차

관례와 계례는 예로부터 『高麗史』, 『國朝五禮儀』, 『四禮便覽』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갑오경장까지 그 의식이 행해져 왔다(안혜숙·주영애·김인옥, 2002). 『四禮便覽』에서 관례의 경우 남자의 나이 15세에서 20세까지 혼인에 관계없이 모두 관례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례의 경우에는 여자의 나이 15세가 되면 시집가게 되지 않더라도 이를 행하였고 혼인이 정해졌을 때에는 이에 흡수되어 혼인식이 거행되는 당일 날 식전에 행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하여 관례와 계례를 행함으로써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우는 禮로 責成人之禮임을 알리고 이를 인정한 것이었다.

관례와 계례를 행하는 날짜는 해당되는 해 正月 중에 좋은 날을 가려서 禮를 행하였다. 혹은 4월이나 7월 초하루에 날을 정하기도 한다. 이는 冠을 쓰는

것은 사람으로서 人道의 출발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날에 하는 것이다. 단, 관례 할 나이가 되었더라도 부모의 상이나 暮年(기년 1년: 백숙부모)이상의 喪中이거나 大功(대공9개월:사촌형제)상에 아직 장례를 지내지 않았으면 관례를 치르지 못하였다(안혜숙·주영애·김인옥, 2002).

관례의 본 절차인 시행과정은 세단계로 삼가례, 초례, 자관자례의 절차가 있다. 『增補四禮便覽』<sup>21)</sup>은 禮의 본질을 따르면서 가례의 실천예의를 제시하여 禮의 보편성을 추구한 예서라는 데 큰 가치가 있다(이길표·김진숙, 2000). 여기서는 『增補四禮便覽』 「권1」의 冠禮에서 三加禮, 醮禮, 字冠者禮의 祝辭를 보면서 관례의 의미를 살펴본다.

### (1) 三加禮

삼가례는 관자가 아이 때 입던 동자복 차림에서 어른의 평상복·외출복·예복의 순서로 세 번에 걸쳐 점차 예를 갖춘 어른의 성장한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관을 씌워 어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어른의 세계로 분리됨을 뜻한다. 관례일 삼일 전에 주인은 사당에 먼저 告한다. 하루 전에 賓을 모셔 집에서 자게하고 관례일 아침 일찍 관모와 의복을 벌려 놓고 삼가례의 절차를 시작한다(문옥표 외, 1998).

① 始加禮 : 아이의 복장인 사규삼을 벗고 어른의 평상복인 관을 씌우고 심의를 입히는 의례절차이다. 이 때 冠賓의 祝辭로 始加의 의미를 일러 준다.

---

21) 『增補四禮便覽』, 1900년 『四禮便覽』을 고증, 정정하여 重刊된 책으로 간행자는 지송욱, 편저자는 황필수임. 목차는 권1 관례(부록 계례), 권2 혼례, 권3~7 상례, 권8 제례로 구성됨.

좋은 달 좋은 날에 처음으로 元服<sup>22)</sup>을 씌우니 너의 어린 마음을 버리고  
성숙한 덕을 따라 길하게 오래 살고, 네 큰 복을 더욱 크게 하여라.<sup>23)</sup>

② 再加禮 : 어른의 출입복인 갓을 씌우고 조삼(도포)을 갖춘 후 빈이 축사를 한다.

길한 달 좋은 날에 너에게 관을 거듭 씌우니, 너의 위엄 있는 모습을 더욱 신중히 하고 너의 덕을 잘 삼가 만년토록 오래 살아 큰 복을 받아라.<sup>24)</sup>

③ 三加禮 : 어른의 의례복인 幘頭를 쓰고 난삼으로 갈아입히는 절차이다. 관빈은 삼가의 축사를 한다.

좋은 해 좋은 달에 형제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너에게 관을 세 번 모두 씌워 너의 덕을 이루게 하였으니 길이 오래 살아 하늘의 복을 받아라.<sup>25)</sup>

## (2) 醮禮

醮禮는 아이의 세계에서 어른 세계로 이동하는 경과 의례로 관자를 어른으로 대우하며 어른만이 마실 수 있는 술을 내리는 의식으로 하늘과 땅에 서약

---

22) 元은 머리이다. 관은 머리에 쓰는 것이므로, 원복이라 한다.

23) 『增補四禮便覽』, 「冠禮」, 始加禮 祝辭, 吉月令日 時加元服 棄爾幼志 順爾成德 壽考維祺 以介景福

24) 再加禮 祝辭 “謹爾威儀 淑慎爾德 眉壽永年 享受遐福”

25) 三加禮 祝辭 “兄弟具在 以成厥德 黃? 無疆 受天之慶”

하고 마시는 절차이다. 관례를 신성한 의식으로 정화시키고 관례자의 복과 수명을 비는 정화의례이다. 관빈은 초례의식의 축사를 한다.

좋은 술이 맑으며 훌륭한 안주가 향기로우니, 이를 절하고 받아 제주하여 너의 복을 굳게 하고 하늘의 기쁨을 받아 오래 살면서 잊지 말기를 바란다.<sup>26)</sup>

### (3) 字冠者禮

字冠者禮는 관례의 의식이 끝나면 어른의 세계에 통합되었음을 의미하여 빈이 관자에게 字를 지어주는 절차이다. 字는 새로운 이름으로서, 새 이름은 새로운 탄생에 뒤따른다(장철수, 1997) 본명은 존귀하게 여겨 아무나 부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근엄하게 실천할 덕목이 함유된 글자로 지어 주었다. 축사는

예의를 갖추어 좋은 달 길한 날에 너의 字를 밝게 고하노라. 이 字는 매우 좋아 髦士(모사: 뛰어난 선비)에게 마땅하고 크게 어울리니, 길이 간직하여라.<sup>27)</sup>

관례를 치른 후 관자는 사당에 가서 조상을 뵈고, 이어서 어른을 뵈는다.<sup>28)</sup> 관자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각별한 대접을 하는 데에 유의를 한다. 부모는 어른이 된 아들이 처음으로 하는 절이므로 앉아서 받지 않고 일어나서 받는다.

26) 醮禮 祝辭 旨酒既清 嘉薦令芳 拜受祭之 以定爾祥 承天之休 壽考不忘

27) 字冠者禮 祝辭 禮儀既備 令月吉日 昭告爾字 爰字孔嘉 髦士攸宜 宜之于假 永受保之

28) 冠者 見于祠堂 次見于尊長

다. 또한 주위의 어른들도 이들에게 어른으로 대우하여 말씨도 ‘해라’에서 ‘하계’로 바꾸고 관례를 치른 후에야 완전한 성인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주영애, 2010). 남자의 冠禮에 해당하는 여자의 笄禮는 冠禮가 初加, 再加, 三加인데 비해, 笄禮는 單加로 되어 있음이 다르다 하겠다. 그 이유는 여자의 관은 족두리 하나 뿐인 까닭이다.

### 3) 관·계례의 소멸 원인

전통사회의 출생의례, 관·계례, 혼례, 수연례, 상례, 제례 등 가정의례는 그 중심에 서서 조상과 자손을 이어주는 매개체이며, 충효를 바탕으로 가정 내 가족 간 조화 및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산교육의 장이기도 하였다. 그 중 관례는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의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말 개화기 이후 의례로서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우리사회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 이유에 대해 신상구(2010), 조희선외 (2002), 주영애(2010)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상투와 冠의 三加禮로 상징되었던 외형적인 형식이 을미개혁(1895)때 고종의 斷髮令과 서구식 의복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둘째, 주로 사회의 지배계층이 행해지던 의례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일반화되지 못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을 뿐더러 의례를 행하였던 양반 계급이 해체 되었다.

셋째, 조선 후기에 들어와 조혼의 풍습이 만연하면서 관례는 혼례의식의 일부로 흡수되어 관례 자체만의 의례로서는 뚜렷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여 사

회적 의의가 약화되었다.

넷째, 관례의 의례에서 어른의 세계로 통합됨을 의미하는 ‘字’를 쓰는 풍속이 약화되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다섯째, 종가중심의 가정의례 전승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마을단위 집성촌이 붕괴되면서 핵가족화로 변화되었다.

여섯째, 성년자는 20세가 넘어도 부모로부터 정신적·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현실과,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필요한 의례로 여겨질 만한 동력을 상실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사회의 주요 가정의례였던 관혼상제중의 하나인 관례는 우리사회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 2. 현대 성년례의 변천과정

현대성년례의 원형이었던 관례는 근대화이후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우리사회의 가정 내 의례에서 사라졌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가정 의례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제정 공포한 ‘의례준칙’에서도 관례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일각에서는 관례가 불필요한 의례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이는 광복이후 까지도 유지되었다(손창환, 1958)<sup>29)</sup>. 이에 광복이후 가정의례에 관해 제정된 1961년 ‘표준의례’, 1965년 ‘예절기준요항’, 1969년 ‘가정의례준칙’(홍춘미, 1971)에도 혼, 상, 제례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면서 관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정화(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은 우리나라 정부와 각 기관이 성년을 맞는 시기로 그 성년을 축하하기 위한 과정에서 성년을 맞는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1973년에는 성년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주로 정부산하 기관이나 기업체의 일부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 기념식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는 정부 주도하에서 기념식으로 담보하고 있는 동안 사회 저변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년식이 만들어지고 성균관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전통관례가 처음으로 재현되었고 이를 계기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례가 접목된 성년식이 거행되었다.

‘성년례’라는 명칭은 1986년에 한국전례연구원의 『월간실천예절』을 통해서 ‘성년례’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 예의생활실천운동을 통해 각 예절서와 예절단체에 보급되고 서서히 ‘성년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일

29) 1958년 당시 손창환 보건사회부장관이 국회보에 “관례는 사실상 폐기된 하나의 옛이야기에 불과하므로 의례규범에서 제거하였다”고 기고한 것을 볼 때 사회지도층에서도 관례를 불필요한 의례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화 되었다(김정화 · 최성희 · 이화진, 2010). 1997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표준 성년례를 발표하였고, 성년례가 법률로 정해진 것은 1999년이다. 1999년 8월31일에 대통령령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성년례'(건전가정의례준칙 제1장 제2조 관련)라는 명칭으로 포함되었다. 2000년 들어서는 성년례 의미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만 20세 생일을 맞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청소년들의 생일을 기준으로 성년례를 기획하기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의 시행에 의미를 두어 12월에 고등학교에서 성년례를 행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성년례의 효용에 가치를 두고 시행되기도 한다. 2008년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일부 개정 되면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수연례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성년례'가 정립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건전가정의례준칙(제2장 5조 관련)에 명시된 성년례 시기의 연령은 만 19세로 정해져있다.

현대 성년례는 국가에서 지정한 성년의 날에 성년자에게 의식을 거행해 줌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고 바람직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의례이다(이길표 · 최배영, 2001).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 2조(정의)에서 '성년례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 · 사회 · 국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인으로 인정받는 의식절차임을 말해 주므로(이길표 · 최배영, 2001) 현대 성년례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교사회에서의 전통적 관례를 바탕으로 한 현대의 성년례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지만 생활방식의 변화로 '성년례'라는

새롭게 붙여진 명칭과 새로운 형식으로 변형 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대성년례의 유형은 개별성년례와 집체성년례로 분류할 수 있다. 개별성년례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로 김득중(1986)과 건전가정의례준칙(1999)에 그 시행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부록 참조>, 전통관례의 형식적 의미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주영애(2010)의 연구에서 보듯이 현대의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가정안에서의 의례가 점차 가정 밖의 의례로 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으로 개별성년례가 가정의례로 정착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개별성년례 보다는 집체성년례가 국가기관, 관공서 및 사회단체에 의해 다양한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대성년례의 형식은 전통사회에서 행하던 관례·계례의 삼가례와 관을 씌우던 절차 대신 '성인 선서'와 '성인 선언'의 형태로 성인이 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인지시키게 구성되었다. 현재 집체성년례는 문화체육부에서 1997년에 발표한 표준성년례 절차와 1999년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성년례 식순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 3. 현대 집체성년례의 유형

현대의 성년례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행하는 개별 성년례와 단체로 시행하는 집체성년례의 방법이 있다. 집체성년례는 문화체육부의 표준성년례 절차와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성년례 식순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다른 형식의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행 ‘성년례’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한 한국전례연구원과 S대학교의 집체성년례를 중심으로 그 모형을 살펴보겠다.

#### 1) 한국전례연구원(1986)

현대 성년식이 전통관례를 도입하여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의식은 참가 성년자들 중 대표만 경험을 할 수 있고, 다른 참가자들은 관람하는 입장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례연구원에서는 참석한 성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년선서’와 ‘성년선언’을 도입한 성년례식순을 1986년 8월 1일에 『월간실천예절』을 통하여 각 예절단체에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형은 1988년 5월 16일에 삼성항공주식회사 창원공장에서 만 20세가 되는 남녀 사원 252명을 대상으로 집체성년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김정화, 2010). 이 행사의 의식을 ‘성년례’라 칭하였고, 큰손님 초빙, 성년선서, 성년선언, 큰손님의 수훈이라는 절차와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였다.

성년례의 시기는 현행 민법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만 20세가 좋으며, 5월 성년의 날이나 주최자의 특별한 기념일 등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다.

개별성년례에서 성년자들은 전통배례와 醮禮인 술의 의식을 行하는 반면, 집체 성년례에서는 국민의례와 전통 배례인 절 대신에 현대의 경례를 하며 술의 의식은 하지 않고 간소화 하였다. 집체성년례의 절차는 월간실천예절(김득중, 1986)을 참고하였고 다음<표Ⅲ-3>과 같다.

## 2) 표준성년례 (문화체육부, 1997)

1997년에 문화체육부에서 표준 성년례를 발표했다. 표준성년례의 개요에 성년례는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절차로서, 상고시대부터 면면히 계승되어 온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冠婚喪祭 중 첫 번째 예식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성년례절차는 전통관례절차를 대부분 수용하고, 절차에 '성년선서문'과 '성년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어서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모습을 공존하고 있다(김정화, 2010). 冠禮의 三加禮는 어른이 입는 3가지 복장 [평상복, 외출복, 관복] 을 갈아입히고, 성인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三加禮의 祝辭(표Ⅲ-1)를 한다. 남자 성년자는 유건·도포를, 여자성년자에게는 한복과 족두리 [또는 비녀] 복식의 한복으로 통일하고 전통의식인 성년례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음은 술의 의식인 醮禮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술잔을 내려 주고 술을 마시도록 허락하는 의식을 행한다. 여기에서 여자 성년자에게는 술 대신 茶를 사용하고 있다. 전통 관례에서는 성인이 된 성년자에게 이름대신 부를 수 있는 字와 함께 가르침을 내려주었으나, 최근에는 字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평생토록 지닐 삶의 교훈을 전하는 垂訓禮로 대신한다.

<표 III-1> 표준성년례 축사

---

□ **초가례 축사**

좋은 달 좋은 날에 어른이 되었음을 축하하니, 이제부터는 어린 마음을 버리고 어른의 덕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도록 하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재가례 축사**

이제부터는 어른이 되었으니 항상 몸가짐을 삼가야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돌보아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도록 하십시오.

□ **삼가례 축사**

사랑으로 남을 돕고 믿음으로 친구를 사귀며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일해서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 **초례축사**

술은 향기롭지만 과음하면실수하기 쉽고 몸에 해가 되니 항상 분수를 지켜 몸에 알맞도록 마셔야 합니다.

□ **큰손님 수훈**

선현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윗사람에게 공손하며 항상 배움으로 임할 때 인생에 보탬이 되나니, 착한 일과 더불어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의리를 지키며 불의를 보고 용감하게 맞설 때 주위의 칭송을 받을 수 있으니 평생을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 **성년선언**

이제 모든 예의를 다 갖추었으니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날에 교훈을 주었으니 소중하게 지니고, 이에 합당하는 훌륭한 행동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

현대의 성년례는 성년자 본인이 어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성년선서문으로 다짐을 하고, 冠貧의 역할인 큰손님은 성년자에게 성년이 되었음을 선언하게 된다. 그리고 큰손님이 성년자에게 성년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다. 마지막으로 의식의 종료를 알린다. 진행절차 성년례를 주관하

는 큰손님과 성년자간의 상견례, 삼가례, 초례, 수훈례, 성년선언, 의식 종료의 순으로 진행되며 <표Ⅲ-3>와 같고 각 절차의 축사는 다음<표Ⅲ-1>과 같다.

### 3) 건전가정의례준칙(제정 1999. 8. 31. 대통령령 제16544호, 시행 2008.

10.14] [대통령령 제21083호, 2008.10.14, 전문개정)

8·15광복 후 사회적·문화적 구조의 변경과 경제성장으로 유교적 가정의례는 점차 쇠퇴하고 호화로운 가정의례가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가정의례준칙'·'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을 제정, 공포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그 시행을 권장하였다. 제정 목적은 가정의례를 치를 때 허례허식을 없애고 의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데 있다. 이후 1999년 8월 31일에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정의례 의식절차의 기준을 정한 규칙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제정 1999. 8. 31. 대통령령 제16544호)이 제정되었다. 현재 건전가정의례준칙은 2008년 10월 14일에 대통령령 제21083호에 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표 III-2> 건전가정의례준칙 시행령 내용

-건전가정의례준칙[제정 1999.8.31. 대통령령 제16544호]

[시행2008.10.14] [대통령령 제21083호, 2008.10.14, 전문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례(成年禮)"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거나 그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장 성년례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83호, 2008.10.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제6조제2항 관련)

□ 성년선서

성년선서

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을 있게 하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의 도리를 다할 것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에 참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하여 성년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성년자 ○ ○ ○(서명 또는 인)

성년선언

<p>성    년    선    언</p> <p>성    년    자    ○ ○ ○</p> <p>생년월일        년    월    일</p> <p>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성년이 되었음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주    례    ○ ○ ○(서명 또는 인)</p>
---

< <http://www.law.go.kr/법령/건전가정의례준칙>>

#### 4) S대학교 집체성년례(2008)

2008년 제 36회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 S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성년식” 의 집체성년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집체성년례는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명시된 식순을 토대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특별히 성년예식에서 내빈들이 한 잔의 茶를 내리는 초례와 수훈의 의식을 행하여 학생들이 성숙한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학생들도 앞으로 茶의 맑음과 같이 건실하게 성장, 발전하여 참된 사회인으로서의 목표를 책임감 있게 완성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였다고 한다. 전통과 현대의 모습이 어우러진 이 모형의 절차는 다음 <표 III-3> 과 같다.

<표 III-3> 집체성년례 절차

구분	한국전례연구원	표준성년례	건전가정의례준칙	S대학교
제시 연도	1986	1997	1999	2008
절차	<p>거례선언 성년자 입장 큰손님 맞이 국민의례 일동경례 성년자경례 문명 다짐 성년선서 성년선언 큰손님수훈 성년자 큰경례 축사 성년자 큰경례 일동경례 필례선언</p>	<p>거례선언 상견례 삼가례 초례 수훈례 성년선언 의식종료</p>	<p>개식 국민의례 성년자호명 성년자경례 주례의 훈화 성년선서 및 서명 성년선언 및 서명 내빈축사 및 답사 성년자내빈에 대한 경례 폐식</p>	<p>- 1부 - 개회사 내빈소개 격려사 성년자 호명 성년자 경례 축사 성년선서 성년선언 초례·수훈 성년자 답사 성년증서 수여 축하연주 축하 꽃 증정 성년자일동 내빈 에 대한 경례 폐회사 - 2부 - 기념촬영 다과회</p>
특징	<p>큰손님초빙과 성년선서, 성년선언, 수훈의 절차를 도입하여 진행하고 관례 서식을 현대화한 것이 특징이다</p>	<p>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모형으로 한복복식으로 진행한다. 삼가례, 초례(여자성년자는 차사용)에 이어 字 대신 수훈례를 하고 현대식 성년선서와 성년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도입했다.</p>	<p>현대에 맞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전통배례 대신 경례와 내빈축사 및 답사의 절차가 있다.</p>	<p>건전가정의례준칙의 식순을 토대로 모형을 개발하였다. 초례는 술 대신 차를 이용하였다. 축하 연주의 절차가 있다.</p>

#### 4. 선행연구

성년례에 대한 선행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전통사회의 관례 연구로는 박대순(1987), 김상보(1989), 이문주(2002), 강옥수(2006), 이은영(2006), 조창규(2007) 등이 그 성격과 절차, 구조의 의의 등에 대한 해석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성년례 모형을 개발의 연구로 조희진·김정신(1998), 이정우·김연화·김경아(2000), 조희선·이혜자·이윤경(2002), 김순진(2003),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2005) 등은 전통성년례를 현대에 실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성년례 모형 개발연구를 위해 연구하고 성년례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이동필(2004), 이승원(2006)은 교육적 의미의 연구로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프로그램 개발과 가정교육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성년례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성년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김은희(2009)와 신상구(2010)의 연구가 있었으며,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로 주영애(2010)는 가족행사로서 성년례 정착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현대의 성년례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김정화, 2010)와 성년례의 초례의식에 관한 실태연구(김정화·최성희·이화진, 2011)가 있다.

대학에서의 집단성년례실시를 목적으로 연구하여 조희진·김정신(1998)은 집단성년례의 모델을 모색하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규범화된 성년례문화 보급을 제안한 이정우·김연화·김경아(2000)는 성년례의 필요성을 성년자가 인식하도록 선도 책으로 교양과목의 활성화 및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성년례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신상구(2010)의 연구에서는 성년례가 인생의 출발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

아보고 현재를 생각하며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성년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옛길을 활용한 성년례의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제안하였다. 신상구는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문무왕 → 신문왕 → 효소왕의 3대를 이은 父 → 子 → 孫의 길을 활용하여 성년례의 통과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통과례 프로그램에는 분리, 조정, 재생, 통합이라는 4가지 과정을 넣고, 세부적으로 自我→相生→修養→洗身→成人 誕生이라는 다섯 단계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주영애(2010)는 현대 가정에서는 전통 성년례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특히 행사를 주관해야 하는 부모세대가 성년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므로 그 행사의 의미나 필요성, 형식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성년례를 행하였거나 행할 대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조사와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가족중심의 개별성년례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주영애(2010)의 연구에서 눈여겨 볼 점은 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자료이다. 30대에서 50대까지 2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년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가 55.1%이며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는 27.1%, 잘 모르겠다는 경우도 17.8%로 나타났다. 또한 50대의 경우는 65%였으나, 30대는 28.1%로 연령이 높을수록 응답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성년례 인식과 자녀의 교육과는 관계가 있음을 사례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들이 만 20세 생일에 생일상을 차리고 가족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는데,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직접 술을 가르쳤고 교훈을 내려주었어요. 아

이들이 성년례를 해 준 것을 무척 좋아 했고 뿌듯해 했어요.(사례9)

전통관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 의미를 알고 보니 참 좋아 보이고, 고3인 딸아이에게는 전통적인 성년례를 해주고 싶습니다.(사례3)

<표 III-4> 성년례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 주제	편수	연 도	연 구 자
문헌을 중심으로 관례연구를 하여 그 성격과 절차, 구조 의의 등에 대한 해석과 내용을 제시	6편	1987	박대순
		1989	김상보
		2002	이문주
		2006	강옥수
		2006	이은영
		2007	조창규
전통성년례를 현대에 실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성년례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중심으로 연구	5편	1998	조희진·김정신
		2000	이정우·김연화·김경아
		2002	조희선·이혜자·이윤경
		2003	김순진
		2005	계선자·이정우·박미석 김연화
한국 성년식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 연구	2편	2004	이동필
		2006	이승원
전통관례와 현대성년례 복식을 연구	1편	2008	김혜경
성년례의 문화콘텐츠 방안 연구 새로운 성년례 활성화 방안을 제시	2편	2009	김은희
		2010	신상구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	1편	2010	주영애
성년례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1편	2010	김정화
성년례의 초례의식에 관한 실태연구	1편	2011	김정화·최성희·이화진

이는 성년례에 대해 부모가 지식을 갖고, 어떠한 내용의 성년 축하를 하느냐에 따라 그 교육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년례에 관한 선행 연구를 표로 제시하면 <표Ⅲ-4>와 같다.

본 연구와 관련된 현대 집체성년례의 방향을 탐색한 선행연구의 내용분석은 다음과 같다.

조희진·김정신(1998) 연구에서 새로운 집단 성년례의 방향을 제안한 내용은 첫째, 현대생활에 맞게 하면서 전통 성년례인 관·계례를 포함시켜 엄숙함을 경험하게 한다. 둘째, 회사·대학·각 지역단체 등 조직에서 주관하며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년례에 비해 준비단계에 있어 새로운 절차가 포함된다. 셋째, 시행단계는 간소화하고 초례나 종결단계에서 가족, 친지, 상사, 은사 친구 등과 함께 성인됨을 인정받고 축하의 과정을 강조한다. 넷째, 성년선서와 성년선언이 좀 더 구체적 절차로 들어가 성인됨을 깊이 느끼도록 한다. 다섯째, 성년례 관련 서식을 현대화 한다. 이상과 같이 제안을 하고 무엇보다 부모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정우·김연화·김경아(2000)가 제시하는 연구결과는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규범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성년례 문화가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차원에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생활예절 교양과목의 실습의 한 행사로 이루어져 성년자가 되도록 하는 선도 책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이 정체감 정립할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성년례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해 성년례가 교육적·사회적 통과의례로 정착되기를 바

란다는 제안을 하였다.

조희선·이혜자·이윤경(2002)의 성년식의 정착을 위한 탐색적 연구에서는 반드시 해당 부모가 참석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첫째,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를 마련하고, 전통 성년식인 관례에 담긴 의미는 현대의 성년식에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전통방식의 복장을 그 상징성만을 살려 현대에 맞는 복장과 절차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부모나 친척,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하는 성년식이어야 한다.

김순진(2003)의 연구에서 성년례가 활성화하기 위한 모형개발의 제안을 첫째, 의례는 종교문화 현상이나 그 역사에 대한 연구와 관련을 맺으므로 전통 관·계례의 의미를 되새겨 자신의 종교에 맞게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둘째, 집단성년례에 성년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복장은 경건한 자세로 의식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전통 복장이거나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하도록 하고, 시행절차는 되도록 현대사회의 신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거나 문화행사를 가미시켜야 한다. 넷째, 성년 됄의 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방안으로 성년자 본인의 서약인 성년선서와 성년임을 인정한 성년 선언문을 서명하여 간직하도록 한다. 다섯째, 현대 건전 가정의례 준칙의 형식을 기본으로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새로운 성년례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 한 연구를 중심으로 종합하여 정리하여 보면 부모나 친척, 선생님 등 주변어른등과 함께 하는 성년식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집체성년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복장은 전통 복장이나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하도록 하고 성년선서와 성년선언이 성인됨을 느끼도록 하며,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성년례가 교육적·사회적 통과의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순진(2003)의 선행연구<sup>30)</sup>에서 제시한 성년례의 모형과 새로운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본 연구의 절차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Ⅲ-5>와 같다. 제시된 성년례의 모형은 전통 관례의 절차를 활용하고 성년선서와 성년선언, 주례자 수훈의 도입이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전통관례의 문헌과 현대 성년례의 실태를 연구하여 앞으로 현대 성년례에 대한 관심과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성년례의 대상이 대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점차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례에 대한 교육과 그에 적합한 성년례 연구는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성년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서 冠·婚·喪·祭 중 혼례나 상례, 제례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례·성년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관례가 사회전체에 일반화되지 못했던 이유와 개화기 이후로 점차 사라져 의례의 공백기 등의 원인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1970년 전후에 성년례로 거듭나면서 점점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대에 맞는 성년례가 정착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는 선행연구자들의 의견에 본 연구자도 지지하는 바이다.

---

30) 김순진(2003). 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III-5> 새로운 성년례의 모형개발의 절차

구분	김순진(2003)			본 연구(2012)
종류	개별(전통지향형)	소그룹	집체	집체
절차	성년자입장 (부모님께 큰절) 성년다짐 발표 성년선서 및 서명 성년선언 및 서명 초례 혹은 다례 주례자 혼화 부모님 말씀 선물증정 성년자인사(부모님 과 참석자에 큰절) 참석자 덕담 기념 촬영 다과회 後日차례, 제사 시 에 조상에게 고함	전통성년례 시연 혹은 홍보물관람 축하 연주 주례 축하 성년 다짐 성년선서 및 서명 성년선언 및 서명 부모 인사 기념품전달 및 상호 교환 초례 혹은 다례 축하프로그램 진행 기념 촬영	개식선언 성년자호명 및 입장 주례자 입장 국민의례 주최축인사 및 축하 전통성년례 시연 성년의 다짐 초례 성년선서 성년선언 주례수훈 주인(부모)인사 기념품 전달 성년자 인사 폐식 선언 축하프로그램 진행	국민의례 내빈소개 국선도시연 거례선언 큰손님 모시기 성년자 다짐 고유례 성년선언 성년례 필증 수여 술의 의식 독약례 큰손님 수훈 내빈 축하 주인 인사 가족대표 인사 성년자 배례 예필선언 영상메시지 큰손님 퇴장 가족과의 만남

## IV.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 개발

### 1. 모형 구성

#### 1) 모형 구성의 배경

우리나라의 가정의례는 고유의 토속적인 의례문화에 불교문화, 유교문화, 근대 이후 서양종교 유입과 일제강점, 그리고 서구화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변화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 고유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삶의 양식이었던 전통사회의 가정의례가 그 변화양상을 드러냈다. 가정의례는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의례'로 생각되어 약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족의 규범도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禮가 우리 행동양식의 기층을 이룬다는 사실에 별로 주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속에 아직도 그 기반을 이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개인주의로 치닫는 현대사회에서 근본을 잃지 않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인간관계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禮'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禮는 원시종교에서 발생하여 社會儀禮·社會秩序의 뜻으로 발전했으며, 孔子에 이르러 禮의 근거를 인간의 본질로 내면화 하였다. 이후 예의 형식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은 불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大學』에 “物에는 뿌리와 가지가 있고 事에는 終과 始가 있

다. 先後를 알면 道에 가까워진다.”<sup>31)</sup>라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이 禮에도 本末이 있다. 근본 [本] 은 영원불변한 정신이며, 가지 [末] 는 그때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방법적인 문제이다. 『禮記』에 禮는 무릇 中正을 얻는 것이라 했고<sup>32)</sup>, 또 禮는 때 [時] 를 크게 [重] 하게 여긴다고 하였으니<sup>33)</sup>(권오돈, 1986), 이로써 우리는 禮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음을 窺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은 모든 사물과 상황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니(이동인, 1986), 변하는 상황 속에서 中을 얻는다는 것은 禮의 형식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禮記』 「禮運」의 기록에 “禮라는 것은 義의 열매인 것이다. 義에 맞추어 보아서 和協하면 그것이 곧 禮인 것이라, 비록 先王의 예법에 그러한 禮가 없을지라도 義에 참작하여 적절한 것이면 새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sup>34)</sup> 베로 만든 면류관이 본래 禮이지만 지금은 冠을 생사로 만드니, 검소하다. 나는 여러 사람들 [時俗] 을 따르겠다.”<sup>35)</sup> 『論語』, 「子罕」에는 “대청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본래의 禮인데 오늘날 대청위에서 절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이니 나는 대중과 어긋나더라도 대청아래에서 절하는 것을 따르겠다.”<sup>36)</sup> 는 기록은 옛날의 법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禮의 정신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알맞은 방도를 택함이 예의 정신임을 알 수 있다<sup>37)</sup>(이동인, 1986).

31) 『大學』 3章,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卽近道矣’

32) 『禮記』 「仲尼燕居」, 夫禮所以制中也

33) 『禮記』 「禮器」, 禮時爲大

34) 『禮記』, 「禮運」, 禮也者義之實也, 協諸義而協, 則先王未之有, 可以義起也.

35) 麻冕 禮也, 今也純, 儉, 吾從衆

36) 『論語』, 「子罕」, 拜下, 禮也, 今拜乎上, 泰也. 雖違衆, 吾從下.

37) “時宜, 곧 時中은 禮의 精神이다.” 金明淑, “孔子的 禮에 關한 研究”(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5), p.53.

이와 같이 의례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표현되는 양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재적인 본질인 규범은 변화할 수 없다. 따라서 성년례도 내재된 본질적인 의미는 전통사회의 관례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그 외적 형식은 시대적 변화와 맞추어 현실에 맞는 현대 성년례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배경으로 집체성년례의 모형 구성을 하고자 하였다.

## 2) 모형 구성의 필요성

修己의 단계에서 治人の 단계로 나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총체적 인간관계에 대한 도덕 및 행위규범을 禮의 시작이라 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스스로 삼가며, 삶의 모든 장면에서 의관을 정제하고 곧은 자세를 잃지 않았던 선인들의 생활철학이 바로 冠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冠禮가 매우 중요했으며, 오늘의 현대사회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성년에 대한 법률적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법률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청소년보호법에서 이런 식의 나이 규정을 둔 이유는 만 19세는 대학생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직장인이므로 사회생활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취지일 것이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의례준칙상 성년례는 ‘만 19세’

에 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미 선거권자 기준이 만 19세로 바뀌는 등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었고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년의 나이를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년의 나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성인이 되는 시점으로 법률로 정한 물리적 나이가 있지만 사회생활에서 고등학생은 청소년, 대학생은 성인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볼 때 고등학교 졸업 시기는 개인이 성장하여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인생의 전환기로서 개인에게 있어서 정체의식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사회인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서 법률적인 성년맞이 이전의 성년례가 고등학생에게 꼭 필요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회인이 되라는 의미의 성년례는 성인의 자세로 출발하게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성년임을 인식시켜 주어 자신의 행동에 책임과 성인으로서 의무를 일깨우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

셋째,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중함을 알게 되어 부모의 은혜에 감사와 가족으로서의 결속력으로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주는 자리가 된다.

넷째,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이 형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섯째, 외적 성숙에 따른 내적 성숙을 다짐하는 의미의 성년례를 거행함과 동시에 인간의 궁극적인 영적 삶을 지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전통사회의 관례는 외형적으로 상투를 틀고 어른의 복식을 갖추어 보면서 걸모습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어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는 뜻 깊은 의식이다. 이런 외적, 내적 성숙을 다짐하게 되는 의식은 과거의 관례의 의미와는 본질적으로 같고 시대적 변화와 맞추어 그 외적 형식은 현대에 맞게 변화되어 현대 성년례로 거듭나게 되었다.

현대 가정은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가족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통 관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였지만 현대의 핵가족화된 가정에서 그 형식과 절차를 시행하기에는 부모들의 인식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현대의 집체성년례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성인기로의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우는 뜻 깊은 의식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식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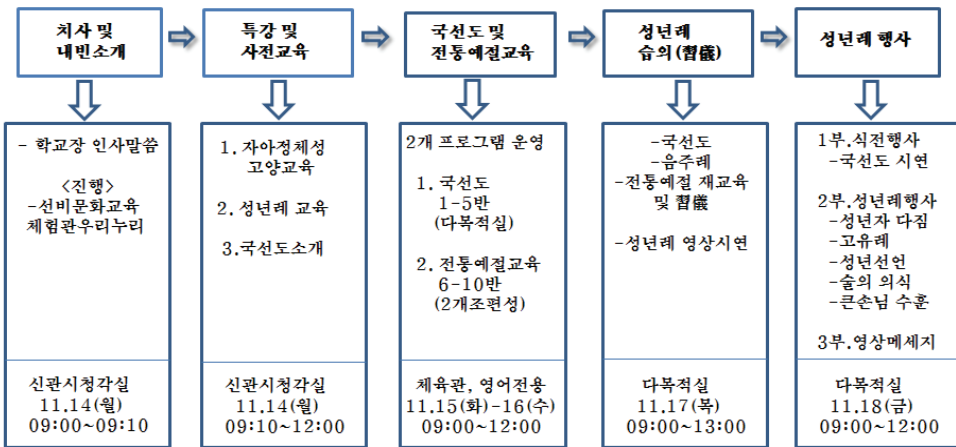
### 3) 집체성년례 모형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인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구성하고 개선점을 탐색해 보기 위하여 성년례의 원형인 관례·계례에 대한 문헌고찰 및 성년례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론적 토대와 고등학생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명시된 식순을 반영하여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집체성년례 시행의 대상은 J시에 소재한 D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60명을 섭외하였으며, 행사의 일정은 수능 시험 후인 2011년 11월 14일~17일로 계획하였다. 집체성년례를 시행하기 전 4일간의 교육이 이루어진

후 11월 18일에 행사를 계획하고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행사의 일정에 다음과 같은 절차 방법을 구성하였다. 이 성년례의 모형은 본 연구자가 집체성년례 행사를 주관하는 선비문화교육체험관 우리누리와 협의하여 구성하였다.

### (1) 집체성년례 모형 진행 절차

모형적용에는 4일간의 사전교육과 당일 본행사의 시행을 계획하였다. 사전교육으로는 성년례 필요성(자아정체성고양교육), 성년례 이해 (전통관례와 현대성년례의 교육), 사회생활에서의 예절과 성년례의식에 대한 예절교육, 국선도 교육을 계획하였고, 본 행사에는 1부 식전행사, 2부 본 행사, 3부 식후행사로 구성하였다. 진행의 흐름은 다음 <그림IV-1>과 같고, 진행절차는 <표IV-1>과 같다.



<그림 IV-1> 집체성년례 모형 전체 진행도

<표 IV-1> 집체성년례 진행 절차

구분	시기	진행 절차	비고	
성년례 사전 교육 (4일간)	50분	성년례 필요성 (자아정체성고양교육)	전체 교육	
	1시간	성년례 이해 (전통관례와 현대성년례의 교육)		
	1시간30분	사회생활에서의 예절과 성년례의식에 대한 예절교육	2개 모듈 편성하여 동시분할 교육	
	1시간30분	국선도		
	1시간30분	사회생활에서의 예절과 성년례의식에 대한 예절 재교육	2개 모듈 편성하여 동시분할 교육	
	1시간30분	국선도 재교육		
	4시간	전체 재교육 및 성년례행사習儀	전체 교육	
성년례 행사 (당일)	1시간30분	1부 식전 행사	국민의례	
			내빈소개	
			국선도 시연	
		2부 본 행사	거례 선언	
			큰손님 모시기	
			성년자 다짐	
			告由禮	
			성년선언	
			성년례 필증 수여	
			술의 의식 - 讀約禮	
			큰손님 垂訓	
			주인 인사 - 학교장	
			가족대표 인사	
		성년자 배례		
		예필 선언		
3부 식후 행사	영상메시지			
	큰손님 퇴장			
	성년자 가족과의 시간			
설문조사	30분	행사 만족도 설문조사		

## (2) 집체성년례 인원구성

본 행사에 참여한 성년자는 250명으로, 이들을 위한 집체성년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큰손님 1명, 주인역할 1인, 진행총괄자 1인, 프로그램 연출 1인, 사회자 1인, 국선도 습의 1인, 예절 습의 3인, 보조진행자로 5명의 인원이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에 동원된 주요 인원은 총264명이었다(표IV-2).

<표 IV-2> 집체성년례 인원구성 현황

구분	큰손님	주인	성년자	진행	연출	사회	국선도 習儀	예절 習儀 <sup>38)</sup>	보조 진행
인원	1명	1명	250명	1명	1명	1명	1명	3명	5명

## (3) 본행사적용 준비물

본 행사가 이루어질 고등학교 内の 대형 다목적실에 행사 하루 전에 집체성년례에 필요한 모든 집기를 준비하였다.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을 위한 방송장비와 행사의 안내를 위한 현수막을 준비한다. 무대 위는 ‘고유례’에 필요한 집기와 큰손님 상을 준비하고 무대 아래는 술의 의식에서 사용할 상차림을 준비하였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배경음악으로는 서일화지곡, 보허자, 수제천, 거상악을 준비하였다. 모두 궁중음악으로 고매한 품격의 감동을 주는 장중한 음악이다. 세부적인 준비사항은 <표 IV-3> 과 같다.

38) 습의(習儀) 수행일과, 행동거지, 의식 등을 배우는 일. 예전에,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 미리 그 절차를 익히는 일을 이르던 말

<표 IV-3> 성년례 행사 준비물

항 목	준 비 물
진행 필요도구	방송, 카메라, 프로젝터설치, 녹음CD(국민의례, 애국가, 묵념, 행사음악), 마이크(탁상용, 편용), 특강교재 사전배포(특강교재, 행사 안내문), 난방준비
큰손님 상	탁자 1개, 성년례필증, 성년선서, 성년선언서, 인니, 돛자리3개
고유례 상	병풍1개, 탁자1개, 탁자보 1개, 촛대 2개, 초 2개, 캔들라이터1개, 쌀, 보리, 조, 기장, 콩 / 삼베, 무명, 명주/ 정화수, 각 그릇 1개씩
술의 의식	술, 주안상 70개, 다식접시 210개, 술잔 250개, 다식 250인분 (매작과, 약과, 호두), 모사기 50개,
행사장	대형화분 4개, 흉화 3개 (큰손님, 주인, 가족대표), 현수막1개, 입현수막(小)2개
배경 음악	瑞日和之曲, 步虛子, 壽齊天, 學床樂 음악녹음CD

#### (4) 본 행사의 필요 서식

본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 ‘성년의 다짐’(표IV-4), ‘고유례’(표IV-5), ‘성년선언’(표IV-6), ‘성년례 필증’(표IV-7), 독약례(표IV-8)의 서식을 작성하였다. ‘성년자 다짐’과 성년 선언은 ‘진전가정의례준칙’의 서식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고유례 서식은 오늘 같은 중요한 행사에 만물을 낳고 기른 하늘과 조상에 알려 천지만물과 더불어 공유하는 보은의 표현이며, 스스로 만유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예를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성년례 의식을 필하였다는 성년례 필증은 ‘성년례 필증 軸’<부록1 참조>의 서예작품으로 격식 있게 구성하여 성년자가 보관하도록 하였다. ‘讀約禮’는 술을 마실 때 절제함을 잃지 않기 위해 약속한다는 내용의 문구로 향음주례를 참고하여 침삭, 재구성하였다.

<표 IV-4> 성년의 다짐 서식

---

성 년 의 다 짐

- 一. 우리는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었기에 오늘이 있게 하신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를 갖추겠습니다.
- 一. 우리는 민족의 얼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一. 우리는 미래의 역군임을 자각하고 자신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 一. 우리는 이 다짐을 지켜 대한민국의 성년으로서 본분을 다 할 것을 천지신명과 어른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성년자 : D고등학교 3학년 O O O(각자이름)

---

<표 IV-5> 고유례 서식

---

고 유 례

(오늘) 단군기원 4344년 11월 18일 O O O은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예를 갖추어 삼가 아뢰나이다. 대한민국 J도 J시 D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동은 천손의 예와 천손의 지혜를 배워 이 땅에 천손의 덕을 펼 수 있는 때가 되었기에 오늘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성년 의식을 거행하옵니다. 예를 다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어여삐 여기시고 받아 주시기 바라나이다.

2011년 11월 18일

O O O 尙 饗

---

<표 IV-6> 성년 선언 서식

---

성 년 선 언

성년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오늘 성년식에 참여한 여러분은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민족의 얼을 올바로 계승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성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신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였기에 나는 주례로서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고유하고 그 뜻을 받들어 인류와 이 땅의 모든 생명 앞에 여러분들이 성년임을 엄숙히 공표하는 바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주례 : ○ ○ ○ (서명 또는 인)

---

<표 IV-7> 성년례 필증 서식

---

성 년 례 필 증

성년자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오늘 성년식에 참여한 여러분은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민족의 얼을 올바로 계승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성년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신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였기에 나는 주례로서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이 사실을 고유하고 그 뜻을 받들어 인류와 이 땅의 모든 생명 앞에 그대가 성년례를 필하고 성년이 되었음을 엄숙히 인증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주례 : ○ ○ ○ (서명 또는 인)

---

<표 IV-8> 독약례 서식

---

독 약 례 ( 讀 約 禮 )

술은 못 생명의 정기를 가려 뽑아 만든 향기로운 것이니 모든 의식과 화합의 절차에 쓰이는 것이다. 많이 마셔서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가눌 수 없도록 마신다면 못 생명의 희생에 반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는 민족의 얼을 이어받고 국가에 충성하며 부모께 효도 하여 가정에 화목하고 향리에서는 서로 잘 어울려 권면하고 상규하는데 쓸지언정 삶을 욕되게 하는데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5) 집체성년례 사전교육

① 성년례 필요성 - 자아정체성 고양 교육

자아정체성 발달은 Erik Erikson(1902~1994)이래 청소년 연구가들이 집중하고 있는 청소년기 중요 발달과제 중 하나이다. 대체로 청소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춘기의 시기를 청소년기의 시작으로 본다. 많은 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청소년기가 특히 자아정체성이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김근영, 2012).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서구화의 도입으로 인하여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신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본다. 문화적 다양성과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자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확립되지 못한 불완전한 시기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지금은 무엇이 필요한지 준비하는 시간이다. 성년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이다. 깨어 있는 눈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보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또한 다음 세대에 주역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정신을 받아 후대에 넘겨줄 필요가 있다. 이번 행사의 계기로 조금이나마 우리 민족정신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자신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교육으로 알고 성년례에 임해야 할 것이다. 성년례 행사에 앞서 자아정체성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과정이며, 성년례 의식에 부디 진중하게 임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② 성년례의 이해 - 전통관례와 현대성년례의 이해

성년례의 사전교육의 목적은 관례의 절차를 통해 그 중요성을 알아보고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 성년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짐해보는데 의의가 있다. 성년례의 원형이 관례는 오랜 전통의 가정의례이다. 관례는 성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일깨우는 의식으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이다. 관례의 의미를 『禮記』의 「冠義」편에 “관례를 한 후에 복장이 갖추어지고 복장을 갖춘 뒤 용체가 바르게 되며 안색이 가지런해지고 응대하는 말이 순해지고 故로 관례는 禮의 시작이라 한다. 그런 이유로 孝悌忠順의 행실이 성립된 후에 사람다울 수 있고 사람다운 이후에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관례를 통해서 총체적 인간관계에 대한 도덕 및 행위 규범으로서의 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회의 인간관계에 질서와 조화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갖추어진다는 말이다. 또한 冠을 쓰는 것은 인간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적 존재임을 깨닫고 자연의 이치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다스리려는 의지를 스스로 세워 자기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冠禮의 절차로 三加禮인 始加, 再加, 三加的 절차와 醮禮, 字冠字禮가 있다. 삼가례는 어린아이의 옷에서 어른의 평상복-외출복-예복을 갈아입고 관을 씌움으로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그림 IV-2> 참조).



동자복-사규삼



관을 씌움-치포관



삼가례(시가)-섬의



삼가례(제가)-도포



삼가례(삼가)-앵삼



초례

<그림 IV-2> 성신여자대학교 박광훈 복식 박물관 사진자료

초례는 술로써 서약을 하는 정화의례이고 자관자례는 어른의 이름을 부여하여 어른의 세계로 통합되었음을 말한다. 이런 절차 때마다 관례를 주관하는 큰손님이 축사를 하는데 축사의 의미는 어린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어른으로써 위엄 있는 모습으로 덕을 삼가서 큰 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례의 역사적 기록으로 고려 광종 16년(965)에 왕자에게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이후 고려, 조선까지 오래도록 이어온 우리 전통문화였다. 관례가 의미가 매우 중요함에도 지금까지 이어오지 못한 이유는 사대부 계층에서 주로 행해지다 보니 일반적이지 못했으며 개화기에 서구문물이 유입되면서 복식이 달라져 관례의 외형적인 변화의 형식을 경험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우리나라의 관례의 성인식은 여러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독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의 성년례는 생활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외형적 형식은 다르게 행해지고 있으나 그 의미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고 성인으로서 힘써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본질적 의미는 예 [古] 나 지금이나 같이하고 있다. 오늘날의 성년례는 올해(2011년)로 39회를 맞이하였다. 전통사회에서 가정의 의례로 이루어지던 관례가 1999년 국가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의 형식에 기준하여 '성년례'로 거듭나 현재 여러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개별 형식과 집단 형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로 시행되는 집체성년례는 국민의례-성년선서-성년선언-큰손님 축사-성년자 배례라는 절차가 주를 이루면서 현대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의 그릇된 성인식이 친구들끼리 또래집단으로 이루어지면서 탈선이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성년이 된다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인 관례의 의미

를 깨달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방예의지국의 한국인임을 깨달아 덕망 있는 한국인으로 힘써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 ③ 사회생활에서의 예절과 성년례의식에 대한 예절교육

공통된 생활규범의 필요성은 서로 어울려 사는 방법으로서 공인되고, 오랜 생활관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울리기 위해 그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윤리관에 입각해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먼저 정립하고, 나아가 대인관계에 임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법을 익혀야 한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이며,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다. 인사는 만나거나 헤어질 때 서로 예를 나타내는 일로서 상대방에게 공경을 나타내는 행동양식이므로 대상이나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소홀하거나 지나침이 없이 정중히 해야 한다. 인사의 방법 중에서 다음 <표IV-19>와 같이 현대 생활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전통 배례법과 현대의 경례법을 바르게 익혀 성년례의식에 임하도록 한다.

<표 IV-9> 전통배례와 현대경례

구분	전통 배례	현대 경례
종류	공수(拱手)	의식경례(90°)
	읍례(揖禮)	큰경례(45°)
	계수배(稽首拜)	평경례(30°)
	돈수배(頓首拜)	반경례(15°)

출처: 김득중(2007), *지향가정의례*, 서울:중화서원

#### ④ 國仙道

국선도는 단전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나아가 智·仁·勇을 고루 갖춘 全人的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련법이라고 <네이버 백과사전>에 표현하고 있다. 국선도 수련의 목적은 극치적 체력, 극치적 정신력, 극치적 도덕력을 갖추어(청산선사, 2001)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三國史記』에 실린 崔致遠의 〈鸞郎碑序文〉 39)에 의하면 “이 나라에는 참으로 오묘한 玄妙之道가 있으니 가로되 風流라 모든 設敎의 근원이 된다. 神史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이 道는 유·불·도 三校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민중을 敎化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 玄妙之道가 바로 風流道로, 상고시대부터 전해오는 민족 고유의 심신수련법인 국선도이다(청산선사, 2001). 화랑들이 했던 수련법이 바로 국선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39) 『三國史記』, 〈鸞郎碑序文〉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敎之源 備詳神史 實內包含三敎 接化群生 且如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국선도는 호흡을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며, 호흡을 통해丹田에 氣를 얻고, 이 氣를 토대로 한 全身의 屈伸動作으로 氣와 체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수련하기가 용이하고 심신의 건강이 향상되고 질병이 자연 치유되며 건전한 인품을 갖게 되고 신체의 경락이 전부 열리게 된다(청산선사, 2001). 정신을 바로 세우고 호흡을 가다듬을 줄 알아야 자기가 서는 것이다. 호흡을 다스릴 수 있으면 자기 다스림에 기본이 될 수 있다.

성인 즉,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일을 접하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함부로 먹고 마시며 되는 대로 행동하고 과용으로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시작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수련법이 필요한 것이다. 국선도는 몸과 마음을 옹골케 하는 즉, 선조들의 민족정신과 선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수련법이다.

수련의 가장 기본적인 단전호흡법을 체득하여 평상시에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것을 익힘으로서 자신은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성인으로서 지켜 나가야 할 기본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전통 수련법인 국선도 수련법을 경험 해 보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하여 修身齊家治國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모형 적용

본 연구의 목적으로 구성된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J시에 소재한 D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60명을 섭외하여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후인

2011년 11월 14일~17일에 성년례에 대한 사전 교육 후 당일 집체성년례를 시행하였다. 집체성년례 행사의 구성에서 사전교육은 <그림 IV-3>과 같고, 본행사의 진행절차는 <표 IV-10>, <그림 IV-4>와 같다.

### 집체성년례 사전교육



<그림 IV-3> 집체성년례 사전 교육

#### 1) 모형 적용 진행절차

우리 고유의 의식인 전통관례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현대성년례의 실태와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개발하여 2011년 11월 14일~18일에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

다. 집체성년례에 본 행사에 참석한 고등학생은 250명으로 <표IV-10>과 <그림IV-4>의 절차와 같이 진행되었다.

<표 IV-10> 모형적용 집체성년례 진행 절차

구 분	시 기	진 행 절 차		비 고
성 년 례 행 사	10:00~ 11:30	1부 식전행사	국민의례	
			내빈소개	
			국선도 시연	거상악 음악
		2부 본 행사	거례 선언	배경 음악
			큰손님 모시기	
			성년자 다짐	
			큰손님 告由禮	배경 음악
			성년선언	
			성년례 필증 軸 수여	
			술의 의식	음악, 상 준비
			讀約禮	
			큰손님 수훈	
			주인 인사 - 학교장	
		가족대표 인사		
		성년자 배례		
예필 선언				
3부 식 후 행사	영상메시지			
	큰손님 퇴장			
	가족과의 시간			

## 집체성년례 행사



국민의례



국선도 시연



거례선언



큰손님 모시기



성년자 다짐



고유례(告由禮)



성년선언



성년례필증수여



술의의식



독약례(讀約禮)



큰손님 수훈(垂訓)



주인인사(학교장)



가족대표인사



성년자배례



예필선언



영상메시지

<그림 IV-4 > 집체성년례 행사 사진

## 2) 告由禮의 이해

告由라 함은 ‘까닭을 말한다’는 뜻으로 나를 돌보는 조상과 성현에게 알리는 禮이며, 만물의 근원 처인 천지신명에게 告하는 행위이다. 告由에는 出入告와 有事告가 있다. 공자는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자식이 먼 곳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禮義이며, 부득이 出他를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어디를 무엇 때문에 가는 지 그 行先地를 밝힐 것<sup>40)</sup>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고유는 出入告에 해당한다. 有事告는 ‘일이 있을 때’ 알렸던 儀式이다. 개인이라면 벼슬을 받았다거나 적장자의 출산, 관례나 혼례, 주택이나 사당·분묘의 이전 및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 행하여졌다. 국가적으로는 나라의 경사나 궁궐의 신·개축, 철거 등의 일을 앞두고 행하여졌다(김용국, 2005).

우리는 하늘의 자손, 즉 ‘天孫’이고 공통된 민족정신은 우주와 하늘의 섭리에 따르는 ‘天孫精神’인 것이다. ‘하늘의 뜻’을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비’라고 부르며 추앙하였다(박석재, 2009). 우리 민족은 유교나 도교와 다른 우리 고유의 다스리는 이치인 하늘, 자연, 조상, 곧 인류 전체를 존중하는 사상을 가진 민족이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天地, 日月, 星辰 등을 비롯하여 先王, 先祖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왔다. 祭禮는 絕對神에게 기도하고 복을 기원하는 종교 의식이 아닌, 자기를 있게 해주신 조상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조상이 지녔던 생전의 뜻을 기리며 추모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이는 인간이 지녀야 할 자세와 태도이며 효도의 연장이라고 하여 왔다. 그러므로 자손 된 도리로서 나의 천지인 부모님과 조상을 지극한 정성으

---

40) 『論語』,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로 모시는 것은 바로 天地의 도리이며祭禮의 근본 의미인 것이다.

유교에서도 충효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우리 고유사상에서도 우리민족은 전래적으로 충효가 기본이며 하늘을 비롯한 자연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일이 기본이었다. 그리하여 성년으로서 기본자세를 갖추겠다는 다짐을 하여 천지신명과 조상께 告하고, 주례자는 그 뜻을 받아서 하늘과 조상을 대신하여 성년선언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성년례의 告由禮는 오늘 같은 중요한 행사에 만물을 낳고 기른 하늘과 조상에 알려 천지만물과 더불어 공유하는 보은의 표현이며 스스로 만유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예를 갖추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쌀, 보리, 조, 기장, 콩의 오곡과 삼베, 무명, 명주 그리고 정화수를 놓고 4배를 올리는 禮이다.

고유례 상차림에 오곡과 천, 정화수, 초를 올린 것은 祭天儀禮인 禪儀式에 祭幣, 祭物, 祭具를 참고하였다. 祭幣는 오곡과 천으로 하늘에 올리는 폐백이다. 오곡과 천은 인간의 의생활과 식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건임으로 항상 이것을 내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풍족하게 주실 것을 기원하는 뜻이다. 오곡은 벼, 보리, 조, 기장, 콩의 5가지를 걸곡식대로 정결하게 골라 담아 올린다. 천은 삼베, 무명, 명주(비단)를 종이 띠로 묶어서 담아 올린다. 祭物로 올리는 天水는 정결한 정화수 한 그릇으로서, 이른 새벽인 子正에 첫 번에 뜨는 샘물을 받아쓴다. 祭具로 올리는 天燈은 白梲脂를 가리키며, 지금은 天燭이라 하여 초를 쓴다(국학연구소, 2008). 촛불을 켜는 뜻은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로 어둠을 물리쳐 환한 빛 [행복] 과 새로운 생명력을 부른다는 즉,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전해져 왔다. 정화수를 올린 이유는 첫 새벽에 길은 맑고 精한 우물물로 맑음과 정결함을 상징하며 샘솟는 생명을 의미한다.

### 3) 讀約禮의 이해

“讀約禮”는 향음주례에 있는 의식으로 그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이 술을 마실 때 절제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해진 문구를 읽으며 약속하는 의식이다. 이번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에서 독약례의 문구는 향음주례를 참고하여 첨삭, 재구성하였다.

술은 못 생명의 정기를 가려 뽑아 만든 향기로운 것이니 모든 의식과 화합의 절차에 쓰이는 것이다. 많이 마셔서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가눌 수 없도록 마신다면 못 생명의 희생에 반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는 민족의 얼을 이어받고 국가에 충성하며 부모에게 효도하여 가정에 화목하고 향리에서는 서로 잘 어울려 권면하고 상규하는데 쓸지언정 삶을 욕되게 하는데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讀約禮는 원래 향당(鄉黨)의 자치규약인 향약을 세우고 月朔에 모여서 향약의 내용을 함께 읽어 다짐한 것을 말한다. 그 절차와 범절을 규정하여 기록한 흘기가 있기 때문에 향당의례<sup>41)</sup>의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권광욱, 1994).

성년례의 술의 의식에 도입한 것은 현대 성년들에게 술은 더욱 절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讀約禮” 낭독을 마친 성년자는 술잔을 들고 禮를 갖추어 잔을 눈높이로 들어 올려 하늘에 다짐하고, 술잔을 내려 바닥의 모사기에 세 번 조금씩 지우며 땅에 절제를 다짐한다. 그리고 반 남은 술은 禮를 갖추어 마시고 안주를 먹는다. 술을 세 번 지우는 까닭은 천·지·인의 三才精神에 의하여 지우는 것이다.

---

41) 지연이나 학연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연륜과 학덕이 높은 이를 빈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며 향당의 친목을 도모하는 의식

## V.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의 실태 및 인식 조사

### 1. 집체성년례의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

#### 1) 집체성년례에 대한 인식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J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012년 4월 현재 J시에 소재한 고등학교는 총 28개교가 있었다. 조사대상 학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28개교의 운영 주체별 대상에는 공립이 9개로 32.1%, 국립이 1개로 3.6%, 사립이 18개로 64.3%를 나타냈다. 교육 과정별 대상은 일반계가 22개로 78.6%, 전문계가 4개로 14.3%, 특수학교 및 자율학교가 각 1개로 3.6%를 나타냈다. 대상 학교의 학생 성별 구성의 경우 남녀공학이 7개로 25%, 남고가 9개로 32.1%, 여고가 12개로 42.9%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고등학교 교사의 직급 및 직책을 살펴보면, 교장이 1명으로 3%, 교감 15명으로 53.6%, 교사가 4명으로 14.3% 각 부장(교무, 교육, 연구, 학생 부장)이 8명으로 17.8%를 나타내어 과반수가 교감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의 전화면접 결과는 28개 학교 중 집체성년례가 시행된 학교는 1개교(3.6%)였으며, 6명(21.4%)의 대상자가 성년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집체성년례 행사를 할 계획이나 의향은 3명(10.7%)으로 전반적으로 관심 및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표 V-1> J시 소재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실태

분류	구분	N	%
행사여부	없다	27	96.4
	있다	1	3.6
관심정도	없다	22	78.6
	있다	6	21.4
행사의향	없다	25	89.3
	있다	3	10.7
총계		28	100.0

조사대상자의 고등학교 집체성년례의 인식에 대한 전화면접은 직접 면담보다 짧은 답변의 소극적인 태도였으며, 학교를 대표하여 교사 1명과 전화면접은 학교 전체적인 의견으로 일반화하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교사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성년례에 대한 인식에서 성년례는 고등학생과 관계가 없다는 선입견의 반응이었다. KHC학교 외 2개교의 교사는 성년례는 대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년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SH학교의 홈페이지에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아 더 크고 높은 비전을 가지고서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배려하는 바른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라는 학교장 인사 말씀이 되어 있는 이 학교의 교사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집체성년례에 대한 행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는 의견을 주면서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듯 다음과 같은 응답을 제시하였다.

우리 학교에서는 요즘 혁신학교,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어

서 수능 끝나고 먼저 성년례에 대한 교육 등의 특강이라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아~ 예 좋습니다. 원하는 학생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죠. (SH학교 J교감).

또한, GY학교의 교사는 2011년에 집체성년례의 행사를 계획해 보았으나 경비가 많이 들어 그 경비로 여러 행사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무엇보다 학교교육과정상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점에서 입시가 우선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실행해 보고 싶다는 관심을 보였다. 고등학생이 성년례 행사를 하는 점에 대한 질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요즘은 너무 워나 앞만 쳐다보고 달리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갈이랄까요? 그리고 또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예의범절을 중요시 여기는데 학생들이 그런 것 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웠었지요. 성년례행사에 대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지금도 마음적으로 성년례를 항상 하고 싶고, 했으면 좋겠습니다(GY학교 연구부장 K교사).

그렇다면 입시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 경비가 지원이 된다면 행사에 대한 의사에 대해서는 수능 후의 3학년 학생들에게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1,2학년에게는 일년에 한두번 정도 성년례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한편 J고의 교사의 견해를 정리하면 입시위주 교육현황에서 수학능력이 우선으로 인성교육 등 성년례 같은 행사는 밀려 나기 마련인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전통문화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긴 하지만 현실과 이론

은 다르다. 또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의 축소로 인하여 입시에 큰 범위를 차지하는 국·영·수 과목에 집중을 하다보면 결국 인문학적 소양이나 인성교육에 관계되는 과목은 선택과목에서 제외 우선순위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교, 학생, 교사의 평가도 결국 대학 합격률의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이고, 학기 과정에 예절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회성으로 과정 없는 일시적인 행사성의 교육일 뿐이어서 현실적 제도와 이론은 다른 실정이라고 하였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가 8개 과목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한 학년에. 그러다보니까 단위수가 낮은 것들이라든가 입시와 관련이 좀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선택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제 과목도 윤리인데 1학년 때 안 돼 버리니까 좀... 이론은 굉장히 좋은 건데, 현장에서는 보면 적용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는 솔직히 사실이에요. 정말 좋은 거죠, 사실은 어른으로서의 책임의식도 자각할 수 있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의식도 확고하게 세우고 이런 거 참 좋은 거예요. 좋게 보는데 현실이 좀 그래요( JI고의 연구부장 L교사).

고등학생이 성년례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어떤지의 질문에 교사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서에서 가르칠 때, 만으로 성년이 되는 것이 고등학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윤리교과서 전통윤리 189쪽에 보시면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성년의 날로 정해서 만 20세가 되는 젊은 남녀들이 성년례를 치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월

이 가정의달이잖아요? 5월 20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부부의 날로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상도 그쪽이 더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들어요. 3학년은 사실 굉장히 바빠요. 수능 후, 아이들이 입시설명회 간다, 뭐 한다 학교방문도 하고 실제 복잡합니다( JI고의 연구부장 L교사).

이론적으로 공감하신다면 입시문제가 우선이긴 하지만 집체성년례를 행사하기에 경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경비가 확보된다면 행사의 의향은 어떤지를 질문하였다.

상산고나 민사고는...학생들이 우수해요. 여유가 있어요. 민사고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비해 좋은 학교 입시율이 낮아요. 온갖 심혈을 거기에 기울이죠. 사실은 학력위주로만 교육을 한다는 거죠. 사실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의 문제보다도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문제... ( JI고의 연구부장 L교사).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의견이 입시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교육제도 문제로 성년례뿐만 아니라 입시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반응이었다.

정작 아이들보다 우리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배운 것이 서구모델삼아서 발전 지향적으로만 배웠지 우리 것은 고루하고 나쁘다만 배웠지, 요새 애들은 그래도 약간 균형 있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한류 같은 게 있으니까 우리 때는 열등의식이 강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더 문제예요. 선생님부터 배워야지. 오히려 기성

세대가 더 문화사대주의가 강하지요 ( JI고의 연구부장 L교사).

이는 우리 문화와 서구문화의 몰이해로 전통문화에 대한 왜곡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기성세대의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하면 좋죠.”라는 답변이었으나 소극적인 자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제도적 문제를 먼저 알세웠다.

반면에 DA학교의 교사 면접에서는 그간 전통 예절 교육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품성을 지닌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교훈의 첫째가 삼강오륜 교육으로 교육목표의 첫째도 예절 바른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성적 기본이 갖추어지고 나면 학습의 효과도 따라오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려 주어야 하는 의무 또한 교사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판단은 학생들 자신이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DA학교에서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는 나무의 뿌리 같은 부분이어서 학생들의 사고에 많은 영향과 도움을 주며, 대학입시 합격률도 결코 타 학교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집체성년례 행사를 계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 설립이념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예비사회인으로서 덕목과 품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 설립 이념이 유명무실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적극적인 고민과 아울러 아이템을 연구했었고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성년례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태어나 자란 내 고장이 전통예향으로서 음식과 예절, 교육, 문화 어느 것 하나 자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랑스러움을 DA고 학생들만이라도 즐기게 하고 싶은 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

고...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 효행 봉사정신 등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우리처럼 하기를 꿈꿔보고...그렇지 않을까요?(DA학교 학생부장 L교사)

이상으로 조사대상자인 고등학교 교사 28명의 전화면접의 결과를 요약하면 성년례를 통한 전통문화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대학입시교육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현실에서 입시와 관계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년례의 대상이 대학생으로 인식되어 있어 고등학교 성년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학교의 경우 교사는 학생들에게 입시교육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를 알려 주어야 하는 의무 또한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성년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학교 측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2) 집체성년례의 시행 실태

현대 청소년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과는 다른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경제적 풍요 속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사회 전반적으로 성년례에 대한 의미를 되살려 각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 여러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집체성년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http://www.naver.com/>과 <http://www.daum.net/>에서 '고등학교 성년례', '성년례' 라는 키워드로 수집된 자료의 고등학교에 전화통화

를 실시하여 주로 성년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전화면접을 하였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계 성년례를 시행한 고등학교는 대전 D고등학교, 전주 D고등학교, 경기도 D고등학교, 서울 D여자고등학교, 인천 G고등학교, 안성 H고등학교, 목포 J고등학교, 홍천 M고등학교, 산청 S고등학교, 안산 S고등학교, 등으로 조사되었다. 10개 고등학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운영 주체별 대상은 공립이 4개, 사립이 6개이며, 교육 과정별 대상은 일반계가 6개, 전문계가 3개, 자율학교가 1개로 나타났다. 대상 학교의 학생성별 구성의 경우 남녀공학이 7개, 남고가 2개, 여고가 1개를 나타내 다수가 남녀공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면접 대상의 직급 및 직책을 살펴보면, 교사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감, 교무부장, 인성교육부장, 학생부장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나 과반수가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6명, 여자는 4명이었다. 대부분 성년례 행사를 담당하는 교사와 인터뷰 요청을 하였을 때 2명을 제외하고 인터뷰에 응해 준 담당교사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고등학교의 집계성년례 시행실태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된 전화면접의 결과 집계성년례가 행사된 고등학교는 최근 2년간 시행된 학교가 6개로서 근래에 행사하는 학교가 늘었으며, 행사대상으로는 8개 학교가 3학년 학생이었고, 성년자라고 답변한 학교도 2,3학년으로 대부분 고학년 학생이 성년례를 시행하였다. 또한 1회성 행사를 한 학교가 5개, 매년 실시하는 학교가 4개로 나타났다. 집계성년례에 참석한 인원은 전통 관·계례를 재현했던 8명, 28명으로부터

<표 V-2>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시행 실태

구 분	운영 주체	교육 과정	성별 구성	면담자 직급및 직책	시행 년월일	대 상	행사참 석인원	행사 횟수	행사 계획
D고등학교 (대전)	공립	자율계	여자	인성교 육부장	2011, 11, 25.	3학년	580 여명	매년	있다
D고등학교 (전주)	사립	일반계	남자	학생 부장	2011, 11, 18	3학년	250명	1회	있다
D고등학교 (경기도)	사립	일반계	남녀 공학	교사	2012, 5, 18.	3학년	28명	1회	미정
D여자고등학교 (서울)	사립	일반계	남자	교감	2012, 1,31.	3학년	530명	매년	있다
G고등학교 (인천)	공립	일반계	남녀 공학	교사	2011, 12, 13.	3학년	8명	2회	미정
H고등학교 (안성)	사립	자율계	남녀 공학	교사	2008, 5, 19.	성년자	30여명	매년	있다
J고등학교 (목포)	사립	전문계	남녀 공학	교사	2008, 5, 19.	3학년	28명	1회	미정
M고등학교 (홍천)	사립	자율계	남녀 공학	교사	2011, 5, 21.	3학년	148명	매년	있다
S고등학교 (산청)	공립	일반계	남녀 공학	교무	2009, 4, 25.	3학년	50명	1회	미정
S고등학교 (안산)	공립	일반계	남녀 공학	교사	2010, 12,16-23	1학년	761명	1회	미정

한 학년이 모두 참석하여 530명, 580명, 761명까지 있었다. 향후 성년례에 대한 행사 계획으로서 미정과 예정인 학교가 각각 5개로 나타났다. 미정인 학교는 기회가 되면 대부분 다시 할 의향이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각 기관으로 이동하여 성년례를 행하는 학교도 있었다.

<표 V-3> 집체성년례 시행 실태

분류	구분	N	%
시행년도	2008년도	2	20
	2009년도	1	10
	2010년도	1	10
	2011년도	4	40
	2012년도	2	20
행사대상	1학년	1	10
	3학년	8	80
	성년자	1	10
행사주기	1회	5	50
	2회	1	10
	매년	4	40
행사계획	미정	5	50
	예정	5	50
총계		10	100

교사대상 전화면접의 내용은 다음<표 V-4>와 같다.

<표 V-4> 집체성년례를 시행 한 고등학교 교사 면접 결과

구 분	면담자 직급및 직책	면담자 성별	면담 내용
D고등학교 (대전)	인성교 육부장	남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난 후 주례자를 외부에서 모시고 와 최근 몇 년간 계례를 행하고 있다. 복식은 개인이 모두 한복을 준비하고 부모님 참석을 홍보한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D고등학교 (전주)	학생 부장	남자	우리학교 설립이념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예비사회인으로서의 덕목과 품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데 핵심이 있다. 그러한 학교설립이념이 유명무실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적극적인 아이템을 연구했었고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성년례라는 답이 나왔다. 올해도 수능 후 성년례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D고등학교 (경기도)	국어 교사	남자	市の 요청으로 처음 해 보았다. 3학년의 남·여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 28명을 선발하여 전통 관·계례를 재현했다. 전 인원의 복식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의 여건으로 나머지 25명은 참관을 했다. 전통적 행사를 보여주는 것만도 좋은 것 같다. 성년례행사가 여건이 된다면 사회적 책임감도 갖게 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D여자고등학교 (서울)	교감	남자	수능 후 12월에 행사를 2번 했고 졸업식과 연관해서 7년이 되었다. 모두 한복차림이고 부모님께 4배를 드리는 절차와 부모나 지인, 본인이 堂號를 한문이나 한글로 지어 오게 하여 졸업앨범에 기록한다. 부모가 호에 대해 정성을 기울인다. 졸업식에는 입시에 지장이 없으며 며칠 전부터 연습 후 행사를 하고 학생들이 많이 좋아 한다. 소요시간은 40분 정도이다.

G고등학교 (인천)	국어 교사	여자	기관에서 복식을 준비하여 2010년과 2011년 수능 후에 행사를 했다. 3학년을 대상으로 실제 참석인원은 남·여 10명 정도로 전통식 관례, 계례를 재현하고 字도 내려주었다. 3학년이 다하면 좋겠지만 복식이 갖추어지기 어렵고 시간도 2시간여 소요로 간단하지 않았다. 행사를 모든 학생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다. 행사의 절차 등을 지켜보는 것도 신선했다.
H고등학교 (안성)	음악 교사	여자	새터민 자녀의 교육기관으로 매년 성년의 날에 집체 성년례를 만 20세를 기준하여 대체로 2학년과 3학년 학생 중에서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성년의 날에도 남·녀 21명이 한복 복장으로 안성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시행했다. 북한에서 대부분 생일도 못 챙기던 아이로 행사 후 눈물도 흘리고 감격스러워한다.
J고등학교 (목포)	수학 교사	남자	2008년에 학교에서 성년례행사를 1회 해 보았다. 과정이 없어서 안하지만 성년식하면 자신에게 책임감을 줄 수 있어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집체 성년례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M고등학교 (홍천)	담당 교사	여자	학교의 매년 정기 행사로 부모님이 참석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5기로 5월 19일에 시행한다.
S고등학교 (산청)	교무	남자	2009년에 인성시범학교로 1회 보았다. 학교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군청에서 요청이 있으면 학생을 기관으로 보내서 하는데 올해는 없다.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본다.
S고등학교 (안산)	교사	여자	2010년에 12월에 안산의 ○○ 예절관에서 주관하여 1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실시했다. 학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기관으로 이동하여 실시한다.

실제 고등학교 집체성년례를 시행 한 고등학교 교사와의 전화면담 후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성년례 행사는

우리 전통문화의 禮儀式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매우 높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으로는 현대의 성년례를 전통의 관례형식으로 시행하려다 보니 모든 학생들이 성년례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표학생 몇 명만이 성년례에 참여하게 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관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 2. 집체성년례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 1) 성년례에 대한 인식

고등학생에게 성년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J시 지역의 D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2011년 5월에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 후 배포된 380부의 설문지를 자기 기입 식으로 기입하고 즉시 회수하는 형식으로 370부를 수거하였다. 회수된 370부의 설문 중에서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설문지 29부를 제외하고 341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목적에 위해 구체적인 결과 도출 사항으로는 성년례를 알고 있는지와 성년례교육과 성년례의식의 필요성, 참여 의사, 행사에 대한 요구사항 등의 내용을 설문조사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구는 크게 총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는데, 일반적 특성은 동거 가족, 종교, 부모 직업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전후에 따른 성년례의 인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문항을 구성하였고, 필요성, 교육 필요성, 참여의향, 성년례 행사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각 1개씩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V-5> 성년례 인식 및 필요성 문항 구성

영역	문항 수
일반적 사항	3
성년례 인지	2
성년례 및 교육 필요성	2
성년례 참여 의향	1
성년례 행사에 대한 견해	1
총 계	11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7.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성년례 및 교육 필요성, 참여의향, 성년례 행사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빈도 분석, 성년례 교육 전후의 인지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chi^2$ ) 검증의 통계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족 구성의 경우 ‘대가족’이 49명으로 14.4%이고, ‘핵가족’이 292명으로 85.6%의 비율로 핵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97명으로 28.4%, ‘천주교’가 29명으로 8.5%, ‘불교’는 16명으로 4.7%, 유교는 1명 0.3%, 무교는 188명으로 55.1%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타’는 10명으로 2.9%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의 경우 ‘전문 관리직’은 83명으로 24.3%, 사무직은 115명으로 33.7%, 판매서비스직은 34명으로 10%, 자유업은 77명으로 22.6%로 다양한 직업 분포를 나타냈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 ‘전문 관리직’은 38명으로 11.1%, 사무직은 75명으로

22%, 판매서비스직은 34명으로 10%, 자유업은 39명으로 11.4%, 전업주부는 154명으로 45.5%를 나타내면서 직업이 있는 경우가 총 55.5%로서 과반수를 나타냈다.

성년례 교육 및 행사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 성년례에 대한 인식 및 성년례 정의의 교육 전·후 인지 수준 변화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년례 교육 전 성년례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341명 중 121명으로서 35.5% 비율을 나타내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V-6>.

<표 V-6> 성년례 교육 전 성년례에 대한 인지

변수	구분	N	%
성년례	알고 있다	20	5.9
	들어본 적 있다	101	29.6
	모르겠다	220	64.5
총계		341	100.0

<표 V-7> 교육 전·후에 따른 성년례의 정의에 대한 인지

구분	교육 전		교육 후	
	N	%	N	%
친구들끼리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 해주는 행사이다	18	14.9	6	5.0
가족과 함께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행사이다	29	24.0	18	14.9
성인이 되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알려주는 의식이다	71	58.7	95	78.5
기타	3	2.5	2	1.6
총계	121	100	121	100

$\chi^2=27.453$ , p-value =.001

성년례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121명 중 성년례 정의에 대한 응답결과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알려 주는 의식'이라고 바르게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교육 전 58.7%였으며, 교육 후 성년례 정의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한 결과가 78.5%로 상승함으로 성년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교육 병행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표 V-7).

한편 성년례교육 후 성년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62.2%, 성년례교육의 필요성은 59.5%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성년이 되면 성년례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50.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0.5%로 학교에서 단체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긍정적 참여 의사를 보였다(표 V-8).

<표 V-8> 교육 후 성년례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의사 (N=341)

구분	성년례 필요성		성년례 교육 필요성		구분	참여의사	
	N	%	N	%		N	%
필요하다	212	62.2	203	59.5	예	171	50.1
그저 그렇다	104	30.5	107	31.4	잘 모르겠다	70	20.5
필요하지 않다	25	7.3	31	9.1	아니오	100	29.3

교육 후 성년례 행사에 대해 건의 하고 싶은 의견을 적는 자기평가의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주관적 답변으로 8명이 설문에 성실히 응해주었다.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성년의 날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관례와 현대 성년례의 장점을 조합하여 일생에 한번인 성년례를 신중하고 정식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형식에만 치우치지 않는 의미 있는 행사로 행사 후에 성년례증서를 받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법률로 정해진 성년례가 분명한 가정의례로서 대중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표 V-9>와 같다.

<표 V-9> 성년례 교육 후 성년례 행사의 요구

구 분	의 견
학생 1	성년례 행사할 때 국가 공휴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2	전통적인 관례와 현대적인 것을 적절히 장점을 조합하여 실행한다.
학생 3	생애 한번뿐인 행사이므로 신중하고 정식으로 하고 싶다.
학생 4	너무 형식적인 면에만 치우쳐 의미를 망각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학생 5	성인이 되었다는 증서 같은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학생 6	소요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7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학생 8	대중화 해주십시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성년례의 의미를 알게 된 후의 응답임을 감안할 때, 성년례 교육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 2) 집체성년례 시행 후 참여 만족 및 요구

모형 적용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J시에 소재한 D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4일부터 17일 까지 성년례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4일간의 교육 후 11월 18일에 250명을 대상으로 집체성년례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지는 수능시험 후 입시준비의 영향으로 당일에 배포를 하지 못하고 11월 21일에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조사자로부터 설문지의 목적 및 작성요령을 간단하게 설명하게 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기입하고 즉시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189부가 수거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총 170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목적에 위해 구체적인 결과 도출 사항으로는 집체성년례 의식의 참여 만족과 행사 후 삶에 대한 도움 정도, 전통관례의 체험과 현대 성년례 행사에 요구는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구는 크게 총 7개 구성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성년례 참여 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이정우·김연화·김경아(2000), 주영애(2010)의 연구내용을 참고하여 성년례를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행사 후 삶에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적은 관계로 본 연구자가 실행한 행사 전 교육 내용을 참고하여 총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성년례 참여 만족도, 성년례 체험 희망 행사, 성년례 행사 후 삶에 도움 정도에 관한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여 '매우 좋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좋았다',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은 동거가족, 종교, 부모 직업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년례 참여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성년례 사전교육과 성년례 행사로서 2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성년례 참여 만족도 중 성년례 사전교육은 .818, 성년례 행사는 .902로서 전체 .925의 신뢰도를 보였다. 그리고 전통사회의 관례 체험을 희망하는 절차(행사)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한복을 이용한 어른의 옷으로 갖추어 입는 절차, 관빈(큰손님)의 축사, 초례(술의 의식), 字(이름) 지어주기, 전통관례의 모든 절차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년례 행사 후 삶의 도움 정도에 대한 문항으로 삶의 방향 결정에 도움, 자신이 누구인지 체험 경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중함, 나와 조상과의 연대감과 같이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883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성년례에 대한 견해는 성년례 의식의 필요도와 성년례 시작시기, 성년례 행사 소요시간 등을 묻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V-10> 성년례 문항 구성 및 신뢰도

영역		문항 수	Cronbach's α
일반적 사항		3	
성년례 참여 만족도	성년례 사전 교육	4	.818
	성년례 행사	8	.902
	전 체	12	.925
성년례 행사 후 삶의 도움 정도		4	.883
성년례 체험 희망 행사		5	
성년례에 대한 견해		3	
총 계		27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17.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성년례 참여 만족도, 성년례 행사 후 삶에 도움 정도에 대하여 빈도 분석, 상관 분석, 신뢰도 분석, t검증, 분산분석, 회귀분석의 통계 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항목별 분석으로 첫째, 일반적 특성, 성년례 참여 만족도, 성년례 행사 후 삶의 도움 정도에 대한 기초분석으로 빈도 및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둘째,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년례 행사의 각 항목별 만족도에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년례 행사 구성 항목 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고, 성년례 행사 구성 항목 중 삶의 도움 정도의 수준에 차별화를 주는 행사는 어떤 것들인지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J시에 위치한 한 학교의 고등학생으로 제한되어 확대해석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성년자들이 시기적으로 고등학교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직후이므로 입시 현황의 수시모집 면접 등으로 5일간의 전체적 행사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참여율에 영향이 있었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화된 척도라고 볼 수 없다.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참여 만족 및 요구사항의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가족 구성의 경우 '대가족'이 16명으로 9.4%이고, '핵가족'이 154명으로 90.6%의 비율로 핵가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53명으로 31.2%, '천주교'가 12명으로 7.1%, '불교'

는 6명으로 3.5%, 유교는 3명 1.8%, 무교는 90명으로 52.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타'는 6명으로 3.5%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의 경우 '전문 관리직'은 24명으로 14.1%, 사무직은 47명으로 27.6%, 판매서비스직은 19명으로 11.2%, 자유업은 31명으로 18.2%, 기타는 49명으로 28.8%로 다양한 직업 분포를 나타냈다.

어머니 직업의 경우 '전문 관리직'은 5명으로 2.9%, 사무직은 23명으로 13.5%, 판매서비스직은 27명으로 15.9%, 자유업은 21명으로 12.4%, 전업주부는 62명으로 36.5%, 기타는 32명으로 18.8%를 나타내면서 직업이 있는 경우가 총 63.5%로서 과반수를 나타냈다. 이후 변인별 분산분석 시 '직업 유'와 '직업 무(전업주부)'로서 두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 (1) 집체성년례 참여 만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이 집체성년례에 참여하면서 사전 교육 및 행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와 성년례 행사 후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행사에 대한 요구사항 등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 ① 집체성년례 행사에 참여 만족

성년례 참여 만족도에 대하여 성년례 사전 교육(3.24)보다는 행사(3.41)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식후 행사인 '영상 메시지(3.65)'가 1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큰절하기(3.62)와 '술의 의식(3.62)이 각 2,3위를 나타냈다. 즉, 비주얼한 영상 매체와 현실에 활용 가능한 액티비티적인 행사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년례에 대한 참여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주입 및 전달식 교육에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항목을 현대적 방식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이 전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11).

<표 V-11> 집체 성년례의 참여 만족 (N=170)

성년례 참여 만족도		M	SD	순위	
사전 교육	큰손님 특강	3.19	1.068	3	
	성년례 교육	3.43	1.014	2	
	예절교육	3.49	1.163	1	
	국선도	2.86	1.178	4	
	평 균	3.24	.886		
성년례 행사	식전	국선도 시연	2.95	1.116	8
		본 행사	성년다짐	3.32	1.030
	성년선언		3.34	1.032	5
	고유례		3.38	.985	4
	큰손님 수훈		3.29	1.085	7
	술의 의식		3.62	1.094	3
	큰절하기		3.62	1.130	2
	식후	영상 메시지	3.65	1.132	1
평균		3.41	.815		
전 체		3.35	.792		

②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체 성년례 참여 만족의 차이 분석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체 성년례 참여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과 사후 분석으로 Duncan's 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V -12).

가족구성에 따른 성년례 참여 만족도를 보면 '대가족'(3.62)인 경우가 '핵가족'(3.3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전 교육에서 큰손님 특강의 경우 '대가족'이 3.38 '핵가족'은 3.18, 성년례 교육의 경우 '대가족'이 3.44 '핵가족'은 3.43, 예절 교육의 경우 '대가족'이 3.69 '핵가족'은 3.47, 국선도 교육의 경우 '대가족'이 3.19 '핵가족'은 2.82로 나타났다. 행사에서는 국선도 시연의 경우 '대가족'이 3.13 '핵가족'은 2.93, 성년 다짐의 경우 '대가족'이 3.75 '핵가족'은 3.28, 성년 선언의 경우 '대가족'이 3.56 '핵가족'은 3.31, 고유례의 경우 '대가족'이 3.69 '핵가족'은 3.34, 큰손님 수훈의 경우 '대가족'이 3.63 '핵가족'은 3.25, 술의식의 경우 '대가족'이 4.06 '핵가족'은 3.57, 큰절 하기의 경우 '대가족'이 4.00 '핵가족'은 3.58, 영상메세지의 경우 '대가족'이 3.94 '핵가족'은 3.62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대가족이 핵가족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구성에 따른 집체 성년례 참여 만족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종교에 따른 성년례 참여 만족도를 보면 '기독교'(3.4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천주교'(3.14)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전 교육에서 큰손님 특강의 경우 '불교'가 3.47 '천주교'는 3.00, 성년례 교육의 경우 '불교'가 3.73 '천주교'는 3.33, 예절 교육의 경우 '불교'가 3.80 '무교'는 3.39, 국선도 교육의 경우 '불교'가 3.40 '천주교'는 2.25로 나타났다. 행사에서는 국선도 시연의 경우 '불교'가 3.27 '천주교'는 2.33, 성년 다짐의 경우 '기독교'가 3.49 '무교'는 3.24, 성년 선언의 경우 '기독교'가 3.42 '불교'는 3.27, 고유례의 경우 '기독교'가

3.45 '천주교'는 3.17, 큰손님 수훈의 경우 '불교'가 3.40 '무교'는 3.26, 술의식의 경우 '기독교'가 3.75 '불교'는 3.40, 큰절하기의 경우 '기독교'가 3.83 '천주교'는 3.25, 영상메세지의 경우 '기독교'가 3.89 '불교'는 3.33으로 나타났다. 즉, 사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불교가, 행사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종교에 따른 집체 성년례 참여 만족도의 평균치 차이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성년례 참여 만족도를 보면 '전문관리직'(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무직'(3.1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전 교육에서 큰손님 특강의 경우 '자유업'이 3.39 '사무직'은 2.89, 성년례 교육의 경우 '자유업'이 3.52 '사무직'은 3.19, 예절 교육의 경우 '판매서비스직'이 3.58 '사무직'은 3.26, 국선도 교육의 경우 '전문관리직'이 3.04 '사무직'은 2.60으로 나타났다. 행사에서는 국선도 시연의 경우 '전문관리직'이 3.38 '사무직'은 2.70, 성년 다짐의 경우 '전문관리직'이 3.54 '판매서비스직'은 2.95, 성년 선언의 경우 '전문관리직'이 3.50 '판매서비스직'은 3.11, 고유례의 경우 '자유업'이 3.52 '판매서비스직'은 3.05, 큰손님 수훈의 경우 '자유업'이 3.45 '사무직'은 3.02, 술 의식의 경우 '전문관리직'이 3.79 '자유업'은 3.45, 큰절하기의 경우 '전문관리직'이 3.79 '사무직'은 3.40, 영상메세지의 경우 '판매서비스직'이 3.89 '사무직'은 3.40으로 나타나 사전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자유업이, 행사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전문관리직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에 따른 집체 성년례 참여 만족도의 평균치 차이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았다.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성년례 참여 만족도를 보면 '직업 유'(3.35)와 '직업 무'(3.35)가 비슷한 만족도를 나타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전 교육에서 큰손님 특강의 경우 '직업 무'가 3.18 '직업 유'는 3.20, 성년례 교육의 경우 '직업 무'가 3.37 '직업 유'는 3.46, 예절 교육의 경우 '직업 무'가 3.40 '직업 유'는 3.54, 국선도 교육의 경우 '직업 무'가 2.92 '직업 유'가 2.82로 나타났다. 행사에서는 국선도 시연의 경우 '직업 무'가 3.05 '직업 유'는 2.89, 성년 다짐의 경우 '직업 무'가 3.31 '직업 유'는 3.33, 성년 선언의 경우 '직업 무'가 3.31 '직업 유'는 3.35, 고유례의 경우 '직업 무'가 3.48 '직업 유'는 3.31, 큰손님 수훈의 경우 '직업 무'가 3.27 '직업 유'는 3.30, 술의식의 경우 '직업 무'가 3.55 '직업 유'는 3.66, 큰절하기의 경우 '직업 무'가 3.68 '직업 유'는 3.59, 영상메세지의 경우 '직업 무'가 3.58 '직업 유'는 3.69로 나타나 국선도 및 고유례, 큰절하기에서 어머니 직업이 없는 경우가 약간 높았고, 이외에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직업 유무에 따른 집체 성년례 참여 만족도의 평균치 차이 검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V-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체성년례 참여 만족 차이 분석 (N=170)

일반적 특성	범주	구분	전체	교육				행사								
				큰손님 특강	성년례	예절	국선도	국선도 시연	성년다짐	성년선언	고유례	큰손님 수훈	술의식	큰절하기	영상메세지	
가족구성	핵가족	M	3.32	3.18	3.43	3.47	2.82	2.93	3.28	3.31	3.34	3.25	3.57	3.58	3.62	
		SD	.807	1.097	1.041	1.195	1.211	1.144	1.045	1.057	1.006	1.106	1.108	1.147	1.138	
	대가족	M	3.62	3.38	3.44	3.69	3.19	3.13	3.75	3.56	3.69	3.63	4.06	4.00	3.94	
		SD	.579	.719	.727	.793	.750	.806	.775	.727	.704	.806	.854	.894	1.063	
	통계량	t	1.436	.711	.033	.998	1.717	.669	1.751	.925	1.330	1.307	1.719	1.404	1.057	
	종교	기독교	M	3.47	3.32	3.49	3.57	2.89	3.06	3.49	3.42	3.45	3.30	3.75	3.83	3.89
SD			.820	1.189	1.103	1.248	1.121	1.064	1.103	1.117	1.102	1.153	1.175	1.122	1.086	
천주교		M	3.14	3.00	3.33	3.50	2.25	2.33	3.25	3.33	3.17	3.33	3.75	3.25	3.42	
		SD	.870	1.044	1.073	1.168	1.357	1.303	1.138	1.073	1.030	.985	1.138	1.357	1.084	
무교		M	3.45	3.47	3.73	3.80	3.40	3.27	3.27	3.27	3.33	3.40	3.40	3.73	3.33	
		SD	.837	.990	1.163	1.146	1.298	1.100	1.033	1.033	1.047	1.121	1.242	1.280	1.291	
불/유교 등		M	3.29	3.10	3.36	3.39	2.83	2.91	3.24	3.30	3.37	3.26	3.56	3.53	3.60	
		SD	.757	1.006	.928	1.119	1.144	1.108	.975	.988	.905	1.066	1.018	1.073	1.130	
통계량		F	.924	.939	.705	.654	2.192	1.848	.674	.161	.297	.089	.627	1.272	1.403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M	3.48	3.25	3.25	3.54	3.04	3.38	3.54	3.50	3.46	3.42	3.79	3.79	3.79
	SD		.773	.944	1.073	1.250	1.083	1.056	.833	.933	.833	.830	1.103	1.021	1.318	
	사무직	M	3.15	2.89	3.19	3.26	2.60	2.70	3.19	3.13	3.32	3.02	3.57	3.40	3.40	
		SD	.826	1.127	1.154	1.151	1.173	1.121	1.173	1.172	1.086	1.189	1.098	1.330	1.192	
	판매서비스직	M	3.27	3.05	3.47	3.58	3.00	2.84	2.95	3.11	3.05	3.16	3.53	3.53	3.89	
		SD	1.019	1.224	1.219	1.387	1.291	1.214	1.268	1.286	1.224	1.344	1.429	1.349	1.049	
	자유업	M	3.40	3.39	3.52	3.42	2.87	2.97	3.45	3.45	3.52	3.45	3.45	3.61	3.71	
		SD	.762	1.086	.851	1.205	1.231	1.080	.995	.925	.890	.888	1.028	.955	1.006	
	기타	M	3.47	3.39	3.67	3.69	2.96	3.00	3.41	3.47	3.43	3.43	3.71	3.80	3.69	
		SD	.669	.953	.801	1.004	1.154	1.099	.864	.868	.913	1.080	1.000	.979	1.084	
통계량	F	1.303	1.716	1.635	.922	.886	1.540	1.308	1.175	.781	1.253	.472	.894	.908		
어머니 직업	직업 유	M	3.35	3.18	3.37	3.40	2.92	3.05	3.31	3.31	3.48	3.27	3.55	3.68	3.58	
		SD	.779	1.138	1.059	1.260	1.322	1.193	1.065	1.034	.919	1.104	1.035	1.068	1.209	
	직업 무	M	3.35	3.20	3.46	3.54	2.82	2.89	3.33	3.35	3.31	3.30	3.66	3.59	3.69	
		SD	.803	1.030	.990	1.106	1.092	1.071	1.014	1.035	1.020	1.079	1.129	1.168	1.089	
	통계량	t	.028	.154	.568	.721	-.481	-.896	.163	.275	-1.08	.128	.624	-.470	.630	

### ③ 집체 성년례 절차 항목 간 만족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의 성년례 행사 만족도가 구성 항목 간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표 V-13).

<표 V-13> 집체 성년례 절차 항목 간 만족의 상관관계 (N=170)

	전체	사전 교육				성년례 행사							
		큰손님 특강	성년례	예절	국선도	국선도 시연	성년 다짐	성년 선언	고유례	큰손님 수훈	술의식	큰절하기	영상 메시지
전체	1												
큰손님 특강	.777**	1											
성년례	.780**	.688**	1										
예절	.759**	.614**	.735**	1									
국선도	.596**	.408**	.403**	.331**	1								
국선도 시연	.660**	.461**	.376**	.330**	.750**	1							
성년 다짐	.853**	.578**	.552**	.564**	.457**	.514**	1						
성년 선언	.853**	.564**	.546**	.583**	.424**	.519**	.889**	1					
고유례	.782**	.515**	.501**	.490**	.403**	.470**	.760**	.789**	1				
큰손님 수훈	.799**	.672**	.559**	.554**	.486**	.580**	.700**	.727**	.706**	1			
술의식	.702**	.495**	.517**	.529**	.243**	.313**	.583**	.555**	.546**	.532**	1		
큰절하기	.790**	.605**	.617**	.609**	.266**	.355**	.654**	.687**	.585**	.620**	.543**	1	
영상 메시지	.511**	.335**	.363**	.318**	.065	.191*	.366**	.359**	.304**	.323**	.346**	.448**	1

\* p<.05, \*\* p<.01

전체 집체성년례 참여만족과 상관성이 높은 항목은 성년다짐(.853), 성년선언(.853)으로서 성년례 행사의 전반적인 만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항목 간(성년다짐과 성년선언)에 .889의 높은 상관성을 보여 성년으로서의 다짐과 선언이 유사한 성년의식 절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년례 행사의 구성 항목별 상관성을 살펴보니 국선도의 경우 교육(.596) 및 시연(.660)에서 다른 성년례와 만족도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국선도 행사가 3일간의 짧은 수련으로 인해 의의 및 방법에 있어서 성인식과 관련한 의미 전달이 미흡한데 기인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영상 메시지의 경우 식후 행사로서 만족도 수준(3.65)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성년례의 각 본 행사의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성(.511)을 나타냈다.

#### ④ 성년례 후 삶에 대한 도움

성년례 후 삶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하여 전체 3.32의 평균을 나타냈으며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성인이 됨에 있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3.29), '존재하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체험하는 경험이 되었다'(3.28), '나의 존재가 조상과의 연대감으로 이어 받았으며 미래로 지속됨을 인식하였다(3.27)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표 V-14) .

<표 V-14> 성년례 후 삶에 대한 도움

(N=170)

성년례 후 삶에 대한 도움 정도	M	SD	순위
1. 성인이 됨에 있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29	1.108	2
2. 존재하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체험하는 경향이 되었다.	3.28	1.062	3
3.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3.44	1.026	1
4. 나의 존재가 조상과의 연대감으로 이어 받았으며 미래로 지속됨을 인식하였다.	3.27	1.053	4
전체	3.32	.913	

### ⑤ 성년례 참여 만족이 삶의 도움정도에 미치는 영향

성년례 행사 만족이 삶의 도움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 회귀 분석을 한 결과 52.7%의 설명력을 보이며 성년 선언(Beta=.255), 큰손님 수훈(Beta=.242), 성년례 교육(Beta=.240)의 유의한 회귀 계수(Beta)가 도출되었다. 이는 각 성년례행사 만족이 1점 ( 5점 만점 중) 상승함에 따라 삶의 도움 정도가 각 회귀계수만큼 높아지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표 V -15> 참조).

여기서 성년 다짐은 성년 선언과 상관성(<표 V -13> 참조)이 높아 성년 선언과 더불어 유의한 행사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년선언과 성년다짐은 전체 성년례 행사 만족도와 .853의 높은 상관도(<표 V -13> 참조)를 보임과 동시에 삶의 도움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성년례에서 학생들이 비로소 성년임을 인식하고 삶의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느끼고 있는 바 부모님께서 참여하여 성년을 기념하는 작명 또는 號를 전달함으로써

성년례에 대한 의미를 고취시키면서 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 V-15> 성년례 행사 만족이 삶의 도움정도에 미치는 영향 (N=170)

성년례 행사	Beta	t	F-통계량	모형설명력
(상수)	.851	4.453**	61.70**	52.7%
성년 선언	.255	3.596**		
큰손님 수훈	.242	3.548**		
성년례 교육	.240	4.012**		

\*\* p<.01

## (2) 집체성년례에 대한 요구

### ① 전통 관례 중 체험 희망 행사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이 전통 관례 중 각 절차에서 체험을 희망하는 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표 V-16).

<표 V-16> 전통 관례 중 체험 희망 행사 (N=170)

구분	M	SD	순위
어른 옷 갖추기	3.28	1.217	3
관빈의 축사	3.08	1.182	4
초례	3.72	1.168	1
작명	3.52	1.173	2
관례 모든 절차	3.08	1.192	4

전통 관례 중 '초례'(3.72)에 대한 체험 희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작명'(3.52), '어른 옷 갖추기'(3.28)가 각 2,3위를 나타냈다.

## ② 성년례 시기 및 행사 소요시간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성년례 시기 및 행사 소요 시간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표 V-17).

성년례를 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로 '고등학교 수능시험 후'가 81명이고 47.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 순으로 '만 19세 성년의 날에'가 29명으로 17.1%, '고등학교 졸업식 때'가 21명으로 12.4%를 나타냈다. 이는 본 조사의 성년례 행사 시기가 학생들의 선호 시기와 부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년례 행사에 적당한 소요시간으로 '1시간'이 65명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2시간 이내'가 56명 30.9%로 약70%의 다수가 2시간이내의 짧은 행사시간을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향후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시험 후 대학입시준비의 일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의 대학입시나 취업 전에 정기적인 성년례 행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실제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표 V-17> 성년례 시기 및 행사 소요시간

변수	구분	N	%
성년례 시기	고등학교 재학 중	14	8.2
	고등학교 수능시험 후	81	47.6
	고등학교 졸업식 때	21	12.4
	대학교 입학식 때	7	4.1
	만19세 생일 때	11	6.5
	만19세 성년의 날에	29	17.1
	기타	7	4.1
행사 소요시간	1시간	65	38.2
	2시간이내	56	32.9
	3시간이내	17	10.0
	1박2일	27	15.9
	기타	5	2.9
총계		170	100.0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졸업 전 학생들에게 성인이 되기 전에 갖춰야 되는 덕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집체성년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의 실행을 통하여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성년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인식조사와, 집체성년례 모형을 구성하여 시행한 후의 성년례 참여 만족에 대한 조사로 두 단계로 실시되었다.

첫 단계인 고등학교 교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년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교 성년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성년례를 행하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은 고등학생에게 전통문화나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대학입시교육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현실의 제도적인 문제로 성년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학교의 교사들은 우리 전통의 禮儀式인 성년례는 교육적으로도 매우 효과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학생들은 성년례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35.5%로 나타나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성년례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는 성년례교육 필요성에 대해 59.5%, 성년례의식의 필요성에는 62.2%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또한 자기평가의 개방형 질문으로 성년례 행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종합하면 성년의 날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전통적인 관례와 현대 성년례의 장점을 조합하여 일생에 한번인

성년례를 정식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고등학생들의 집체성년례 모형을 구성하여 시행한 후에 이에 대한 참여 만족 조사 결과를 보면, '영상메시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큰 절하기, 술의 의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체성년례 참여 만족과 상관성이 높은 항목은 성년다짐(.853)과 성년선언(.85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년다짐과 성년선언은 .889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성년례 시행에 적절 시기로 '고등학교 수능시험 후'가 47.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대부분 2시간 이내의 짧은 행사시간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 학생들은 전통 관례절차 중에서 초례, 작명, 어른 옷 갖추기 순으로 체험을 희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 후 바람직한 고등학교 집체성년례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들이 경건하고 신성하게 성년례의식에 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행하고 의식을 준비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가정에서 사회로 나아가는 인생의 전환기로서 정체성의 확립이 요구되는 때이며, 이럴 때일수록 어른의 가르침과 교훈 속에서 경건한 격식의 성년례 의식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년선언에 대한 '성년례 필증'을 격식 있게 갖추어 성년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이는 성년례 의미를 새기게 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셋째, 부모가 성년자들에게 호를 작명하여 줌으로써 성년례의미를 더욱 고취시켜줄 것이다. 전통의 字冠子禮의 절차를 "號부여하기"로 대신하여 부모가 성년을 기념하여 호를 작명 하여 줌으로써 성년례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다. 그럼으로

써 성년자들은 號를 부여받고 어른이 되었음을 자각하게 되며 스스로도 그 몸가짐을 삼가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성년자들은 ‘부모님께 올리는 글’을 올림으로써 보은의 禮를 갖는다. 성년자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글인 ‘부모님께 올리는 글’을 작성하여 성인이 되는 첫 발걸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보은의 마음을 새겨봄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해보게 될 것이다. 이는 성년이 되기 위한 준비시간을 갖게 하여 성년자의 앞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본다.

다섯째,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년자는 한복을 입고 성년례를 행하도록 한다. 이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을 일깨우며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다.

여섯째, 집체성년례 의미를 살리기 위해 중요한 점은 부모가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참석은 성년자로 하여금 주인공임을 인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집체성년례에서의 개인적인 의미의 상실과 관련된 단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이로 인한 노력으로 성년례의식의 주최인 학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여 부모참석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집체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집체성년례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의 집체성년례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집체성년례를 시행한 후 참여 만족도와 개선점을 보완하여 수정된 집체성년례 모형을 제시한다. 보완·수정된 절차로는 1부 국민의례- 내빈소개, 2부 거례선언- 큰손님모시기- 성년자 다짐- 告由禮- 성년선언- 성년례 필증 수여- 醮禮 [술의 의식] - 讀約禮- 호부여하기- 부모님께

올리는 글- 큰손님 수훈- 주인 인사(학교장)- 가족대표 인사- 성년자 배례- 예  
필선언, 3부 영상메시지- 큰손님과 주인 퇴장- 성년자 가족과의 만남- 기념사  
진 촬영으로 구성하였다. 향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집체성년례 모형을 졸업  
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시행함으로써 성인의 기본자세를 갖추어 사회로 나아가  
게 되고, 집체성년례의 정착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집체성년례의 실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인원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집체성년례에 참여자들이 엄숙함을 경험하기  
위한 방안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집체성년례의 모형 개발이 요구  
된다. 또한 성년례에 대한 확산을 위해 성년자들과 부모 대상의 성년례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아울러 고등학교 교사들이 집체성년례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 과정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포  
함되어, 집체성년례 활성화에 바탕이 되는 사전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현대의 바람직한 성년례 의식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실제적인 기  
초자료에 도움이 되도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체성년례의 모형을 개발하  
고 시행하였으며, 그 후 보완·개선되어야 할 점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향 후 성년례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原典>

- 『高麗史』
- 『家禮輯覽』
- 『四禮便覽』
- 『增補四禮便覽』
- 『論語』
- 『禮記』
- 『三國史記』
- 『朱子家禮』
- 『朝鮮王朝實錄』
- 『禮記集說』
- 『儀禮』
- 『四禮纂說』
- 『大學』
- 『小學』

### <單行本>

- 국사편찬위원회(1986). 中國正史 朝鮮傳. 서울:친풍인쇄주식회사.  
권오돈역해(2009). 禮記. 서울:홍신문화사.

- 권광욱(1994). 육레이야기. 서울:해돋이.
- 金星元校閱(2004). 小學集註. 서울:明文堂.
- 김득중(1986). 월간실천예절. 제16집. 서울:한국전례연구원.
- 김득중(2007). 지향가정의례. 서울:중화서원.
- 두산동아 사전편찬실(1997). 百年玉篇. 서울 ;두산동아.
- 문옥표외 3인 역주해제(1998). 조선시대 관혼상제(1). 성남: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기봉역(1994). 漢字正解. 중국:비봉출판사.
- 박석재(2009). 하늘을 잇은 하늘의 자손. 서울:(주)동아사이언스.
- (사)국학연구소(2008). 배달민족의 역사의식과 사상가들. 서울:한뿌리.
- 안혜숙·주영애·김인옥(2002).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서울:신정.
- 윤사순(2001). 한국민속의 세계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상옥 역저(1991). 禮記. 서울:집문당.
- 장철수(1997). 한국의 관혼상제. 서울:집문당.
- 정경주(2006). 한국고전의례상식. 서울:신지서원.
- 청산선사(2001). 국선도. 서울:도서출판 국선도.
- 段玉裁(1981). 說文解字注. 상해:상해고적출판사.

### <학위논문>

- 강옥수(2006). 조선시대 의례서에 나타난 관·계례 연구.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진(2003). 성년례의 활성화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희(2009). 성년례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2008). 전통관례와 현대 성년례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대순(1987). 조선시대 관례의 사적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양례(2005). 조선시대 사대부의 관혼상제의 다례와 복식-“주자가례와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필(2004). 마산시 고교생들의 예절 및 관혼상제 인식에 대한 조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정(2002). 관례의 절차·복식에 내재된 의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춘미(1971). 家庭儀禮(婚喪祭禮)에 關한 一研究.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회지>

계선자·이정우·박미석·김연화(2005). 성년례 프로그램 모형개발 및 성년례 참여자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76.

김근영(2012). 청소년기 자아정체성 연구의 대안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9(3), pp.85-108.

김시황(1999). 한국 관례 계례 연구. 동양예학3. 동양예학회, pp.1-23.

김용국(2005). 화성축성시 고유제 연구 -醴酒를 중심으로 본 마을제의 제주 재인식-. 비교민속학, 28, pp.207-231.

- 김정신·조희진(1999). 집단 성년례의 바람직한 모형. 경원전문대학논문집, 21, pp.405-423.
- 김정화(2010). 성년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1960년 이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13(2), pp.29-54.
- 김정화·최성희·이화진(2011). 성년례의 초례의식에 관한 실태연구. 생활문화연구, 25(2), pp.63-81.
- 박혜인(2001).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6(1), pp.31-54.
- 박혜인·조은숙(2001). 도시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pp.167-184.
- 백두현(2006).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관례와 혼례. 남명학연구원, 선비문화, pp.57-64.
- 손창환(1958). 「의례규범제정의의」. 국회보, 1958년 3월, p.56.
- 송복(1981). 예의 이념적 고찰, 연세대학교, 인문과학45, p.167.
- 송재용(2010). 목제일기와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의 관·혼·상·제례. 한문학논집, 30, pp.303-320.
- 송재용(2001). 한중일 의례에 나타난 공통성과 다양성-관혼상제례를 중심으로 -. 비교민속학, 21, pp.279-303.
- 신상구(2010). 옛길을 활용한 성년례의 활성화 방안 연구-신문왕로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2, pp.69-99.
-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2000).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Ⅱ: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pp.

1-24.

- 유송옥·이민주(1998). 효명세자 책례, 관례 의식 및 복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학회지, pp.93-126.
- 이길표·김진숙(2000). 『增補四禮便覽』 통해 본 관례.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3(1), pp.63-73.
- 이길표·최배영(2001). 가정의례준칙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 비교분석. 생활문화연구, 15(1), pp.167-185.
- 이동인(1986). 禮의 本質과 그 現代的 意義. 정신문화연구, 1986년 여름호, pp. 56-67.
- 이문주(2002).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연구, 17, pp. 25-50.
- 이문주(2010). 주자가례의 조선 시행과정과 가례주석서에 대한 연구. 유교문화연구, 16, pp.37-59.
- 이승원(2006). 한국 성년식의 교육적 의미. 진리논단, 13, pp.257-274.
- 이은영(2006). 祝辭와 字說을 통해 본 관례 -17세기 양상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9(2), pp.67-98.
- 이정옥(1990). 관례복식연구.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13, pp.1-43.
- 이정우·김연화·김경아(2000). 성년례시연을 통해 본 성년례 모델 개발의 탐색적 연구 -참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pp. 13-128.
- 이희재(2001). 초례의 종교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12, pp.329-345.

- 이희재(2000). 한국의 전통관례와 성인의 의미. 동양학회, 5, pp.137-153.
- 조창규(2007). 유가 관례의 문화해석. 동양한문학, 27, pp.415-440.
- 조희선·이혜자·이윤정(2002). 성년식의 정착을 위한 탐색적 연구 -대학생의 필요성 인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5, pp.255-268.
- 조희진·김정신(1998). 집단 성년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pp.141-172.
- 주영애(2010). 가족행사로서의 성년례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어머니들의 성년례에 대한 인식과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pp.1-20.

## 인터넷자료

- <http://100.naver.com/>
- <http://www.law.go.kr/>
- <http://timeline.britannica.co.kr/>
- <http://blog.daum.net/jds6333/1375>
- <http://blog.daum.net/musu59>
- <http://www.kgnews.co.kr/news/>
- <http://media.daum.net/society>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Joint Coming-of-Age Ceremony of High-School Students**

Choi Sung Hee

Majoring in traditional Culture Contents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Cultural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plore the form of the Coming-of-Age Ceremony that best suits the highschool students. For the study, I have developed a joint coming-of-age ceremony model, based on paper research of coming-of-age ceremonies, preliminary researches, and recent trend of coming-of-age ceremonie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in helping highschool students to acquire basic attitudes as a grown-up and understand the elegance of Korean traditions with the developed joint coming-of-age ceremony model, and providing fundamental reference data in establishing modern coming-of-age ceremony.

As a method of the study, a survey of highschool students' recognition

of coming-of-age ceremony has been conducted, and satisfaction and further demands has been researched after answers has participated in the ceremony. In addition, another survey has been conducted on recognition of coming-of-age ceremony of highschool teachers. The data used in teacher survey has been collected from teachers from 28 local high schools in the "J" city, and from 10 high schools nationwide, which has been reported to have practiced the ceremony. In case of the student survey, the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students of "D" highschool, a local highschool in the "J" city. The first student survey has been conducted in may 2011, of first grade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necessity of the coming-of-age ceremony. The second student survey has been conducted from november 14th, 2011 to 18th of the same month, of third grade students' satisfaction on joint coming-of-age ceremony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student survey, average 3.66 points out of 5 has been scored in the first graders survey of attitude toward the necessity of the coming-of-age ceremony, which has been conducted after going through a educational course about the ceremony. In the data collected from third graders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joint ceremony, the students have shown highest satisfaction in the 'video message', by scoring 3.65 out of 5. This was followed by the 'deep bow' event(3.62), and 'alcohol ceremony'(3.62). The time regarded to be most appropriate for the joint coming-of-age ceremony has appeared to be "After the KSAT test" by ratio of 47.6%, followed by 'Coming-of-age day of 19' by 17.1%, and 'At highschool graduation' by 12.4%.

As a result of a telephone survey of teachers of target schools, 1 out of 28 local high schools(3.6%) in "J" city has conducted joint coming-of-age ceremony, and teachers from 6 schools have shown interest in the

ceremony. However, when asked about future plan or interest in conducting the ceremony themselves, only 3 schools have shown positive response, implying that overall interest or intention to be low. In case of nationwide cases of schools which have conducted the ceremony, most schools were choosing 3rd graders as the subjects of the ceremony, and majority of the survey participants have shown common opinion that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coming-of-age ceremonies were very high.

In the practice of the study result, the ceremony model was consisted of the first part: 'The Pledge of Allegiance' - 'Guest Introduction' - 'Kouksundo Demonstration', the second part: 'Declaration of Ceremony' - 'Honored Guest Reception' - 'Presentation of the Coming-of-Age Certificate' - 'Alcohol Ceremony' - 'Dokyak Ceremony' - 'Honored Guest Distinction' - 'Host(Principal)'s Salutation' - 'Guests' Message' - 'Family Representative's Message', and the third part: 'Video Message' - 'Honored Guest and Host Recession' - 'Meeting of Participants and Families' - 'Photo taking Session'. The 250 third graders has participated in the event.

The suggestion of future orientation, based on the post evaluation data from the ceremony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and teachers should conduct a systemized education and preparation of the ceremony, so that the teenagers could participate in the ceremony in a sincere and earnest manner. Second, the 'coming-of-age certificates' should be formerly kept by the participants, so that it could become a reminder to the new grown-ups, of the meaning of the ceremony. Third, parents should make an art-name for the new grown-ups, as an emphasis of the meaning of the ceremony, Fourth, the new grown-ups should present their parents a 'letter for the parents', in a respect of their parents. Fifth, Han-bok should be worn in the important ceremony, so that Korean traditions could be properly

observed. Sixth,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coming-of-age ceremony is the participation of the parents. Seventh, based on the data from the practice of the highschool coming-of-age ceremony, I have added the 'art-name presentation' and the 'letter for the parents' events as the improvements to the model.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new model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highschool joint coming-of-age ceremony.

The coming-of-age ceremony will serve as the opportunity of setting up the upright identity, through the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It is consider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he continuous attention of the parents and the constant parental guidance of being a grown-up. Parental concern and encouragement are strong foundation for teenagers in advancing towards a mature society.

This study has its meaning in its development of joint coming-of-age ceremony of highschool students, and that it has proposed further improvements and orientations, based on the actual practice of the ceremony. Further research will be necessary for the coming-of-age ceremony to be passed down as one of the Korean proper manner, and for it to be established and to take place actively.

## 부록 목차

<부록 1> 성년례 필증 축, 부모님께 올리는 글

<부록 2> 집체성년례 모형 자리 배치도 1, 2

<부록 3>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 식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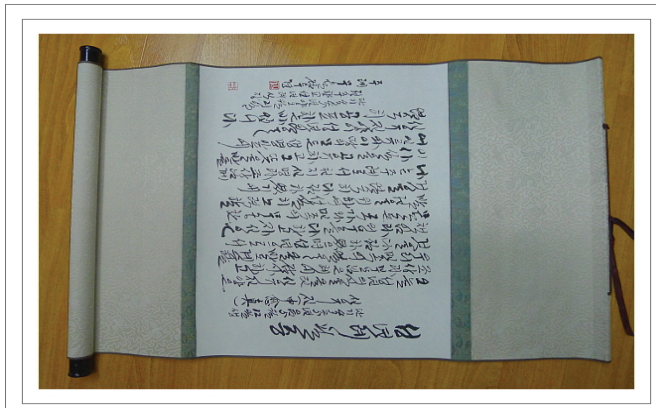
<부록 4> 설문 1

<부록 5> 설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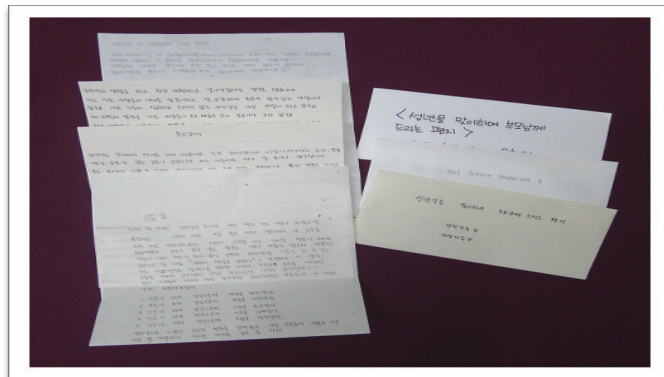
<부록 6> 성년례 수업지도안

<부록 7> 한국전례연구원 '성년선서' '성년선언' 서식(1986)

<부록 1> 성년례 필증 축, 부모님께 올리는 글



< 成年禮 必證 軸 - 선비문화교육체험관장,  
서예가 중하 김두경 作 >



< 부모님께 올리는 글, 성년자의 미래설계 >



<부록 3>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 식순

고등학교 집체성년례 모형 식순

- 1부 식전행사 (국민의례 및 국선도시연)
- 2부 성년례 본 행사
- 3부 식후행사 - 영상메시지

집체성년례 모형 식순

1 부  식 전 행 사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1절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	교장선생님과 큰손님, (사)국선도 무예협회 총재, 가족대표를 소개합니다.
	국선도 시연	학생들은 국선도 시연 대형으로 자리를 정리하여 1반~5반 학생들은 건강 호흡 행공법을 시연하고, 6반~10반 학생들은 5공법 시연하겠습니다.
2 부  성 년 례 본	거례선언	지금부터 2011년 J고등학교 3학년 O O O군 외 250명의 재학생들의 집체성년례 행사를 선비문화교육체험관 우리누리 O O O 관장님을 큰손님으로 모시고 거례하겠습니다.
	큰손님 모시기	-참석자 모두 일어나 큰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주인(교장선생님)은 큰손님(우리누리 관장님)에게 평경례(30도인사)로 인사하여 맞이하고, 큰손님도

행 사		<p>주인에게 평경례로 인사합니다.</p> <p>-큰손님은 정한 자리에 위치합니다.</p> <p>-성년자들은 참석하신 손님에게는 평절로, 주최 측 어른과 부모님, 큰손님께서는 의식큰절로 예를 갖춥니다.</p> <p>-모든 참석자는 성년자가 아직 성인이 아니므로 성년자에게 답배하지 않습니다.</p>
	성년자 다짐	<p>-성년자 일동은 대표가 '성년의 다짐' 구령을 하면 오른손을 왼쪽가슴에 얹고 함께 복창합니다(&lt;표 IV-4&gt; 성년의 다짐 서식 참조).</p>
	큰손님 고유례 (告由禮)	<p>-큰손님의 고유례 낭독이 있겠습니다(&lt;표 IV-5&gt; 고유례 서식 참조).</p> <p>-큰손님은 배례 - 고유문 낭독 - 배례 - 소지의 절차로 진행합니다.</p>
	성년 선언	<p>-큰손님께서 성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lt;표 IV-6&gt;성년 선언 서식 참조).</p>
	성년례 필증 축(軸) 수여	<p>-큰손님께서 성년자에게 '성년례 필증 축(軸)'을 수여 하겠습니다(&lt;표 IV-7&gt;성년례 필증 서식 참조).</p> <p>-성년자 대표는 동쪽계단으로 올라가 큰손님 앞 방석에 앉아 공수자세로 목례를 합니다.</p> <p>-성년자 대표는 필증 축을 받고 목례를 한 후 일어서서 동쪽 계단을 이용하여 제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성년자 일동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큰손님께 의식큰</p>

	<p>절로 예를 갖추겠습니다.</p> <p>-큰손님은 성년이 된 성년자들에게 답배를 하십니다.</p>
술의 의식	<p>-1,2학년 후배들이 3학년 선배들을 위해 주안상준비를 합니다.</p> <p>-큰손님의 음주례 수훈이 있겠습니다.</p> <p>-큰손님 낭독 : “좋은 술이 맑으며 안주가 향기로워 이를 절하고 받아 제주하는 것이니 절제함을 잊지 말아서 복을 굳게 하고 하늘의 기쁨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네.”</p>
독약례 (讀約禮)	<p>-독약례는 향음주례에 있는 의식으로 그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이 술을 마실 때 절제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해진 문구를 읽으며 약속하는 의식입니다.</p> <p>-성년자는 앞에 앉은 동료들 웃어른으로 생각하고 웃어른의 예로 술을 따르십시오.</p> <p>-사회자 선창과 함께 독약례 낭독을 하겠습니다(&lt;표 IV-8&gt; 독약례 서식 참조).</p> <p>-성년자는 잔을 눈높이로 들어 올려 하늘에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술잔을 내려 바닥의 모사기에 세 번 조금씩 지우며 땅에 마음속으로 절제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반 남은 술은 예를 갖추어 마시고 안주를 먹습니다.</p>
큰손님 수훈	<p>-큰손님 수훈말씀이 있겠습니다.</p> <p>-성년자는 큰손님께 예를 갖추겠습니다.</p>
주인인	<p>-주인인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p>

	사말씀	-성년자는 주인 인사말씀 전·후에 평경례로 예를 갖추고, 주인께서는 반경례로 답배하겠습니다.
	가족대표 인사	-가족대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년자는 가족대표인사 전·후에 평경례로 예를 갖추고, 가족대표께서는 반경례로 답배하겠습니다.
	성년자 배례	-성년자 배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큰손님께 의식큰절로 예를 갖추겠습니다. -큰손님께서서는 답배하십니다. -성년자는 부모님께 의식큰절로 예를 갖추겠습니다. -부모님은 어른이 된 아들이 처음으로 하는 절이므로 앉아서 받지 않고 일어서서 받으며 답배는 하지 않습니다. -성년자는 내빈께 평절로 예를 갖추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답배하십니다.
	예필 선언	이상으로 2011년 J고등학교에서 주최한 3학년 O O O 군 외 250명에 대한 성년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부 식 후 행 사	영상 메시지	J고등학교의 영상반 후배들이 준비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성년례 의식에 앞서 짧은 기간 교육과정과 선생님들의 당부말씀, 그리고 성년자들의 인터뷰내용을 보시면서 성인으로서 한걸음 발돋움하는 우리 성년자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후 행사	주인께서는 손님을 접대하고 성년자는 가족과 함께 사진 촬영 등의 예후 행사를 갖겠습니다.

## <부록 4> 설문 1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성년례의 바람직한 실행 방안을 위하여 탐색 연구하는 중 청소년(고등학생)들의 성년례 의식조사를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학생의 설문응답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조사된 내용은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학생의 성실한 응답은 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예절다도학과  
지도교수 주영애  
석사과정 최성희

### ◆ 성년례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의견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거나 ( )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 I. 성년례 교육 전에 학생의 사전 의견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 하거나 ( )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1. 성년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_\_① 알고 있다.
- \_\_② 들어 본 적 있다.
- \_\_③ 모르겠다.

2. 성년례는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 \_\_① 친구들과끼리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 해주는 행사이다.
- \_\_② 가족과 함께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 해주는 행사이다.
- \_\_③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알려주는 의식이다.
- \_\_④ 기타 ( )

II. 성년례에 대한 수업을 받은 후 학생의 의견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나 ( )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1. 성년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친구들과끼리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행사이다.
- \_\_② 가족과 함께 성인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행사이다.
- \_\_③ 성인이 되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알려주는 의식이다.
- \_\_④ 기타 ( )

2. 성년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해 주십시오.

- \_\_① 필요하다
- \_\_② 그저 그렇다
- \_\_③ 필요하지 않다

3. 성년이 되면 성년례를 하고 싶습니까?

- \_\_① 예      \_\_② 잘 모르겠다      \_\_③ 아니오

4. 성년례 행사에 건의 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

III.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상황에 일치하는 곳에 √표 하거나 ( )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1.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기록해 주십시오.

__① 할아버지	__② 할머니	__③ 아버지	__④ 어머니
__⑤ 형(언니)	__⑥동생	__⑦삼촌, 고모	__⑧ 외삼촌, 이모
__⑨ 기타 ( )			

2. 학생의 종교는?

- \_\_① 기독교      \_\_② 천주교      \_\_③ 불교      \_\_④ 유교
- \_\_⑤ 무교      \_\_⑥ 기타

3-4. 부모님의 학력은?

학 력	3. 아 버 지	4. 어 머 니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졸 이상		

5-6. 부모님의 직업은?

직 업	5. 아 버 지	6. 어 머 니
① 전문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자유업		
⑤ 기타(전업주부)		

<부록 5> 설문 2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년례 의식을 행한 후 어른으로의 첫발을 내딛는 모든 성년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설문은 향후 성년례의 발전을 위해 성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설문 응답은 성년례발전을 위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설문응답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조사된 내용은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1월 18일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지도교수 주영애

석사과정 최성희(E-mail:dayn7146@hanmail.net)

I -1.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 해주십시오.

- |           |         |            |             |
|-----------|---------|------------|-------------|
| __① 할아버지  | __② 할머니 | __③ 아버지    | __④ 어머니     |
| __⑤ 형(언니) | __⑥ 동생  | __⑦ 삼촌, 고모 | __⑧ 외삼촌, 이모 |
| __⑨ 기타 (  | )       |            |             |

I-2. 귀하의 종교는?

- \_\_① 기독교    \_\_② 천주교    \_\_③ 불교    \_\_④ 유교  
 \_\_⑤ 무교    \_\_⑥ 기타

I-3. 부모님의 직업은? (구분 어려우시면 직접 써주세요.)

직업	아버지	어머니
① 전문 관리직		
② 사무직		
③ 판매서비스직		
④ 자유업		
⑤ 전업주부		
⑥ 기타		

II-1. 전통사회의 관례(성년례) 중에 체험 해 보고 싶은 것은?  
 해당하는 곳에 √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한복을 이용한 어른의 옷으로 갖추어 입는 절차					
2. 관빈의 축사 (큰손님 수훈)					
3. 초례 (술의 의식)					
4. 字(이름) 지어주기					
5. 전통식 관례의 모든 절차					

II-2. 성년례 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좋았다	좋았다	그저 그렇다	좋지 않았다	매우 좋지 않았다
1. 성년례 사전교육	큰손님 특강					
	성년례 교육					
	예절교육					
	국선도					
2. 성 년 례 의 식	식전 행사	국선도 시연				
	성년례 행사	성년다짐				
		성년선언				
		고유례				
		큰손님 수훈				
		술의 의식				
		큰절하기				
	식후 행사	영상 메시지				



## <부록 6> 성년례 수업지도안

주 제	성년례의 이해	강사	최 성 희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례의 목적과 중요성을 알 수 있다.</li> <li>- 성년례의 절차를 통해 그 의미를 알게 된다.</li> <li>-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성년으로서 나아가야 할 마음가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li> </ul>	대상	고등학생
		시간	60분
수업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수업형식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말</li> <li>● 성년례를 알고 있는가?</li> <li>● 강의 주제를 소개한다.</li> </ul>	10분	수업의 흥미 유발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묻고 발표하게 한다.
전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례, 성년례에 대한 바른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례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례의 전통적 인식을 문헌을 통해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禮記』 「冠義」 - 관례는 禮의 시작이다.</li> <li>● 전통관례의 절차와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始加, 再加, 三加, 醮禮, 字 冠者</li> </ul> </li> </ul> </li> <li>◆ 성년례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고 성인으로서의 힘써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li> <li>- '성년 선서' 와 '성년선언문'을 모두 읽어 본다.</li> <li>◆ 현대의 새로운 풍속의 성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성과 관련된 또래문화의 예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가 중요함을 이해한다.</li> <li>- '옛길'이라는 단어로 전통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li> </ul> </li> </ul> </li> </ul> </li> </ul> </li></ul>	40분	<p>PPT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성년례에 대한 절차를 보여주었고 학생들과 질문, 답변 형식의 참여 수업을 한다.</p> <p>성년례의식 배례법을 실습을 통하여 배워본다.</p> <p>계영배를 통해 과욕의 경계심을 알게 되고, 초례의 의미를 이해한다.</p>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자신의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성년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본다.</li> </ul>	10분	- ppt(사진자료)

<부록 7> 한국전례연구원 '성년선서' '성년선언' 서식(1986)

---

성년선서

(성명) ○ ○ ○

년 월 일생

나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이 있게 하신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손된 도리를 다 할 것을 맹세하며, 완전한 사회인으로서 정당권리에 참여하고 신성의무에 충성해 어른의 도리를 다 할 것을 참마음으로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 ○

---

성년선언

(성명) ○ ○ ○

년 월 일생

그대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자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완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정당권리와 신성의무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고 선서했으므로 이 의식을 주관한 나는 이에 그대가 성인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년 월 일

큰손님(서명) ○ ○ ○

---